

2020년 평의원회의 버뮤다 크루즈(4박 5일) 선상 개최

쪽 빛 물길 가르며 피어 오르는 소통, 화합, 비전



【기사: 백옥자 조직국장】

미주동창회(회장 신용남)는 내년 제29차 평의원 회의를 평의원 및 일반 동문들도 함께 참가 할 수 있는 일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이색적인 행사로 4박 5일간의 버뮤다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뉴욕 Manhattan Cruise Terminal에서 출항, 버뮤다로 향하는 이번 크루즈 여행은 쪽 빛, 에메랄드 빛의 버뮤다 물색을 보며, 선내에서 제29차 평의원 회의를 하고, 미주동문들과 가족들도 함께 참가하여 추억을 담는다.

버뮤다(Bermuda)는 미국 해안에서 약 600 마일 떨어진 북대서양에 위치한 영국자치령 국가이다. 여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며 수도는 해밀턴으로 제일 큰 섬에 자리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섬은 20여 개에 불과하며, 위도는 대략 아틀란타, 제주

도와 비슷하다. 영국자치령이지만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까워 미국 영어를 사용한다.

Carnival 선박은 길이 272.19m, 폭 35.36m의 규모이며, 승무원수 1,100명, 총 탑승객 2,764명을 수용하는 큰 규모다. 동문들은 선상에서 자유를 즐기면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수영장, 카지노,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극장 등)을 이용하거나 즐길 수 있다. 또한, KING'S WHARF에 내려 근처에 있는 버뮤다의 수도 해밀턴 관광과 옵션 관광, 개인 관광도 즐길 수 있다.

동창회 모임의 목적은 동문간 협동과 친목을 나누며 단합하는 일일 것이다. 이번 여행은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미래를 설계하는 장이 펼쳐지고 동문간 마음을 나누는 큰 장이 될 것이다. 많은 동문님들의 참여를 바란다.

참여 문의 : 백옥자, 818-395-1967

4박 5일 일정

Day 1	6/25/20	Thu	New York City	Depart 4:00 PM
Day 2	6/26/20	Fri	Cruising / 세미나, 평의원회의	
Day 3	6/27/20	Sat	King's Wharf / Arrive 8:00 AM	Depart 4:00 PM
Day 4	6/28/20	Sun	Cruising / 세미나, 평의원회의	
Day 5	6/29/20	Mon	New York City	

◆ 가격: 4 Day to Bermuda from New York, NY
Carnival Radiance, Jun 25, 2020~Jun 29, 2020
Thu~Mon (4박 5일)

인사이드 \$ 999 (Tex + 항만세 포함) 1인
오션뷰 \$1,099 (Tex + 항만세 포함) 1인
발코니 \$1,349 (Tex + 항만세 포함) 1인

* 항공료 및 공항에서 승선까지 비용은 별도입니다.
* Group 이라 최종 결정을 신중히 하시고 취소가 안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부 평의원인선 동문님께서는 선착순 50 분께 미주동창회에서 200불이 지원됩니다.

◆ 예약 때 필요한 것
여권 정보: 영문 성함(ID 성함과 동일),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 만기일 (신청서 참조)

◆ 크루즈 타실 때 필요한 것
시민권자: 여권, 영주권자: 여권, 영주권, 한국에서 오신 분들: 여권, ESTA 사본, 전자 항공권 사본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곽승용 (의대 65)

욕심, 나 그리고 죽음

인간은 출생해서 성장하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며 일을 열심히 하다가 게 큰 전환기이다. 죽을 등 살 등 열심히 살아오다 하던 일을 멈추니 갑자기 내가 이렇게 아무 것도 하지않아도 되나? 하는 당혹감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것 같은 허탈감을 느낀다. 체력도 급격히 줄고 수입도 절반이하로 줄어 적응하기에 힘들어지게 된다. 돈쓰기가 조심스럽고 미래가 불안하다. 70을 넘기면 지난 10년이 쓴살같이 지나갔는데 다가올10년도 더 빨리 지나가 80에는 정말 많이 늙겠구나, 그때까지 생존할지도 모르겠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한다. 이때에 주위의 친구들도 잃어가고 배우자도 잃기도 해 상실감, 고독감도 문제다.

일본은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고 한국도 15%가 65세 이상이다. 일본은 서서히 초고령국가가 되어 노년이 잘 준비됐으나(일본의65세이상 7가구 평균 수입이 3천만원이 넘고 만족도가 높다.) 한국은 급격한 노령화로 노년의 준비가 거의 안돼 수입이나 노년의 만족도가 낮아 자살율이 OECD국가 중 1위이다. 또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부모 부양의 미풍이 사라져가고 노년기의 고독과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다. 황혼 이혼, 별거, 홀혼, 배우자 死別 등으로 독거 노인들이 늘고 있다.

무엇이 노년의 삶을 어렵게 할까? 건강이 문제일까, 돈이 문제일까? 이런 물질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신적인, 무엇보다도 내마음이 문제이다. 내마음 중에 욕심이 문제이다. 건강은 우리가 어려모로 불편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돈도 천차만별로 개인적 차이가 있으니 국민자가 아니라면 그것이 제일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릴 노력을 하면 건강 문제 돈 문제 등은 힘들지만 받아드리고 극복될 수 있다.

茶根談(중국의 고전)에 '길고 짧음은 생각에서 온 것이며 넓고 좁음은 한치 마음에 달려 있다. 뜻이 넓은 자는 좁은 방도 하늘과

땅 사이처럼 넓다.'고 기술한다. 우선 우리는 내가 늙어가는 현실을,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을 용납치 못하는, 나는 아니라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각자 태어난대로 살아간다.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욕심을 버리

“우리는 각자 태어난대로 살아간다.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욕심을 버리라는 공자 같은 말씀은 잘 들리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길게 보아 계속 자기 욕심대로 나가면 결국 자신에게 크게 해롭게 된다면 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하고 노력해 볼 여지가 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변화가 가능하다...”

라는 공자같은 말씀은 잘 들리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길게 보아 계속 자기 욕심대로 나가면 결국 자신에게 크게 해롭게 된다. 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만 하고 노력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나를 내려 놓으면 사소하고 적은 일에도 즐겁고 감사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만족하며 살 수 있다. 기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기쁘게 살면 엔돌핀이 나오고 면역력이 상승해 병에 잘 걸리지 않고 육체적 건강이 유지된다. 암도 잘 걸리지 않는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받아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 원망을 잃으면 아직도 남은 오랜팔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경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를 내려 놓으면 남도 보이고 더없이 주위가 밝아진다. 남을 도와 줄 수있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 헌신 할 수도 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한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로 인해 덕을 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생각하기도 무서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노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와 당황한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 에픽테토스는 "죽음을 항상 눈앞에 두어라, 그러면 결코 비참해지거나 지나친 욕심에 눈이 멀지 않을 것이다."라고 권면했다. 실제로 노년에는 죽음이나 내일을 기억할 수 없다. 노년을 준비하는데 제

로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밝은 빛을 보고 아름다운 세계를 체험하고 깨어나니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이다. 임사체험 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삶을 더 유용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경우가 많다. 16세기 프랑스의 미셀 드 몽테뉴는 달리는 말 위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고 죽다 살아난 체험을 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남을 위해 봉사하고 좋은 글을 많이 남겼다. 또한 믿음으로 신앙에 귀의함도 고려해야 한다. 내세에 대한 확신,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 등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큰 믿음은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며 봉사하거나 순교도 한다.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물질적 대상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물질 만능주의, 유희론, 실용주의가 만연한 현대사의 문제이다.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 관계 등이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안에 들어앉아 잔소리하고 세기 찾아 먹으면 좋던 관계도 힘들 수 있다. 아내도 남편 은퇴하면 집안 일에서 해방되고 싶었는데 말이다. 또한 노년에는 배우자가 아파 누운 경우, 특히 노년엔 한번 아프면 회복이 힘들어 병수발하는 배우자의 수고가 많이 아니게 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부부간에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면 의처증 의부증도 조심해야 한다. 공동의 노력, 공동의 취미, 친구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노년엔 친구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 바깥 세상과의 통로이고 같이 동무이고 위로자이며 자식보다 가까울 수 있다. 자녀에게 쉽게 대준 부모돈으로 성공한 자식이 드물고, 사업에 실패하면 돈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도 잃는다고 한다. 역모기지(reversed mortgage)해서 장래비 때놓고 그돈으로 편하게 살고 친구들과 실령탕, 아니 더운 여름에 냉면 사먹는게 낫다고 한다. 친구는 치매 예방에 최고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치매 문제도 심각하나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끝으로 노년 건강에는 즐겁고 기쁜 마음의 에 근육 유지와 뱃살 제거에, 많이 움직이고 부지런히 걸으라고 한다. (하루에 萬步) 아니면 근육이 위축되고 자세가 굽고, 찌그러 들고 약해진다. 그외에 여유가 되면 취미로 춤, 골프, 컴퓨터, 음악, 서예, 그림그리기, 글쓰기 등을 배우고 즐기면 금상첨화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오래 앉아서 하는 활동은 몸 에 큰 도움이 안되니 적당히 제한하는게 좋겠다고 생각된다.

세상의 모든 은퇴자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2019년 7월 말에.



정광수 (사회 80)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생각

적당히 하다가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완성되는 일들이 있다. 밥을 지을때 마지막에 불을 끄고 뜸들기를 기다리지만 하면 되는 것처럼, 물론 세상사에 이런 반가운 현상들이 흔하지는 않고 어떤 일을 하다가 잘되겠지 하며 중도에 포기하는 핑계로 쓰이는 것도 옳지 않다. 또한 잘 모르는 부분을 막연히 낙관적인 예상으로 채우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더욱이 나랏일에 이같은 미완의 정책을 적용한다면 허를 찔 일이 될 것이다.

현 한국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생각하면 시작하지 이미 3년째인데도 효과는 물론 그 정책에 관해서도 아직 논란이 분분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사실 경제순환의 병목현상이 위축된 소비에 있다면 소득을 불려서 소비로 연결시킨다는 생각은 경제학 이전에 상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약 민간소비에 잘 통하지

않타깝다. 만약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을 막연한 낙관으로 완성한 배관설치도라면 일국의 경제정책기조로 쓰기에는 담보가 너무 큰 위험한 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정부가 공공지출을 써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민간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생각도 신중한 검토가 앞서야한다. 미국의 지난 금융위기때를 생각해보면 나랏돈을 풀어 급한 불을 끄며 탈출에 성공한 기억이 생생하다. 여기서 아울러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공공지출이 주로 단기적이고 후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민간의 소득창출과 소비증가라는 연결배관을 영구히 또는 장기적으로 대신하는 공공지출은 경제순환에서의 왜곡은 물론 후세들의 부를 허락없이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소득양극화 또는 소득불균형의 문제도 소주성 특히 그 필요

“...만약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을 막연한 낙관으로 완성한 배관 설치도라면 일국의 경제정책 기조로 쓰기에는 담보가 너무 큰 위험한 시도가 아닌가...”

않는다면 공공부분지출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생각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거시경제 전공이 아니라며 회피하려 해도 명색이 경제학 박사인데 소주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계속 받아오다가 둘러댄 답이 있다. 만약 모든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갑자기 용돈을 올려주면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 돈을 더 많이 쓰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냐고. 그런데 내가 아는 한 소주성은 애초에 아빠들이 그 돈을 어디서 계속 더 벌어들일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다고. 어쨌든 완성되지 않은 그림처럼.

어느 저명한 경제학자가 지하실벽에 배관설치도처럼 그랬다고 전해지듯이 경제는 시스템이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각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전체를 이루는 유기적 집합체인 것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한 부분의 연결고리만 잘 고치면 틀림없이 전체적으로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일회성에 지나지 않으면 촉진된 소비가 한국경제 시스템내에서 어떻게 돌고 돌아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체계적인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확신 아니면 그럴듯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내가 들어온 소주성은 그 부분은 내버려두고 그저 뜸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궁금하고 또

성의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 같다. 소득분배가 사회적 정의 등 철학적인 주제를 벗어 나 심각한 현실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당장 덜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더 쥐어줌으로써 해결된다고 보긴 힘들다. 갖다 붙이자면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스스로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야 아니 이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원인을 고칠 능력이 없다면 흔한 감기약처럼 증상이라도 다스려야겠지만, 낫지 않을 감기에 언제까지나 약을 대줄 수 있는 만큼 재력을 갖춘 나라는 아니지 않은가.

정통경제이론에 들어맞는지 혹은 성공한 전례가 있었는지 등등 이런저런 논의를 다 차지하고 색이 검든 희든 일단 국민후생을 증진시키는 경제정책이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각종 지표상에서 나라경제가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이 뚜렷하지 않고 대다수의 경제인들은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원칙적으로는 맞는지 아차하며 한번쯤 현실적 대안이 뭔가를 모색해보는 시간이 된 것 아닐까? 조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보통 사람들은 가던 길이 막히면 그렇게 대처하는데..

Kwang Soo Cheong, Ph. D.
Associate Professor
The Johns Hopkins Carey Business School



최형무 (법대 69)

한국 정치의 꿈과 현실 정당 중앙 공천제도의 폐해

인기 드라마 “보좌관”을 보며 한국을 생각한다...

조국을 생각한다 시리즈에 부쳐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 는 각계각층의 요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한 세대의 기간에 민주화에 이어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

습니다. 국민들의 꿈과 눈물의 기도의 결실이었으나 우리 동문들의 기여도 아주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나는 조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들을 소박하게 (비과학적으로) 진단하는 작은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1982년 1월에 뉴욕에 처음 발을 디뎠으니, 조국을 떠나 생활한지도 어언 37년이 되었다. 뉴욕에서 모국어로 발행되는 신문에서 언론인으로 있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일한 지도 30년 가까이 되었으니 세월은 유수와도 같다.

조국을 떠나 있으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더니 내가 떠난 온 이후 한국이 80년대, 90년대 부터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지금 세계에서 주목받는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되어 있어 자부심을 갖게 된다. 문화적으로도 한류 드라마의 세계적인 보급으로 나라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데 이어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아이들이 연이어 나타나서 전 세계 무대에서 한국어로 노래 부르고 열광적인 외국인 팬들이 한국어로 열창하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삼십년전에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

정치적으로는 1987년에 국민들이 크게 원하는 민주화가 이루어져 언론의 자유와 대통령 직선제 선거제도가 수립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괄목할만한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치적 안정이 있는 가운데서 경제와 문화 생활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국민 생활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인기 주말 드라마 “보좌관 -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우연히 넷플렉스를 통하여 접하게 되어 손에 땀을 쥐고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회 드라마를 기다리게 된다. 사실 이 드라마에서 지적하고 있는 정치적 모순과 폐해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필자가 전일부터 생각해 온 정당 중앙 공천제도의 심각한 폐해이다.

드라마에서 “공명하고 깨끗한 나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뺏기를 달아 “세상 한번 바뀌 보자”고 외치던 두 사람중 한 사람은 꿈에 그리던 의원이 되었으나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고 다른 한 사람, 주인공은 의원 보좌관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열심히 살아 가며 의원을 모시지만, 부패한 의원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부패 혐의를 뒤집어 쓰고 지명 수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드라마가 아직도 진행중이므로 아무쪼록 좋은 결말을 맺어 해피 엔딩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나는 각 정당에서 정당 보스들이 공천권을 갖고 정치인들이나 정치 지망생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현 제도가 고질적이고 제도적인 부패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과거처럼

럼 당 대표나 당의장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정당마다 공천 관리 위원회 또는 유사기구로 만들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에서 누가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중앙당에 있는 것은 지역 당원이나 유권자들의 결정을 외면하는 것과 진배 없다.

따라서 모든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들은 중앙당 보스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도 다음 선거에서 중앙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고 그 동안 나라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쌓아 온 모든 것들이 수포가 되어 버릴 수 있다. 이같은 제도 아래에서 정치지망생들의 경우에 정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잘 보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선거에 출마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은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기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많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철새처럼 움직이고 또 다른 정당이 생겨 나는데, 실상은 같은 정치인들이나 다른 정당의 이름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슬픈 현실인 것이다.

오래전 학교 동창 친구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적이 있는데, 그 때 정치판에 능숙처럼 돌아 다니는 이야기(그러나 실제로는 농담이 아닌 엄연한 현실인 이야기)는 “국회의원 나갔다가 안 되면 세 개지 일중의 하나는 필자가 전일부터 생각해 온 정당 중앙 공천제도의 심각한 폐해이다.

나라를 위해 몸바치겠다고 나선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들이 이같이 불행한 일을 겪어야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그들도 살고 또 좋은 정치인들을 갖게 되는 나라도 백성도 살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프라이머리(예비 선거)를 통해 각 정당의 지역 의원 선거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가 있음을 잘 아실 것이다.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으나, 이 점은 잘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 지망생들이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나 중앙당 보스들의 눈치를 필요 이상으로 보지는 않아도 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 Michael Hyungmoo Choi 2019
Fordham University 법학박사 (J.D.)
변호사 (뉴욕), 전 언론인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a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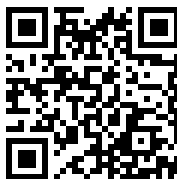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를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향형 (법대 57)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벌써부터 치열한 흑색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Trump 대통령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민주당과 특히 민주당의 진보파들을 사회주의를 신봉하며 미국을 혐오하는 파괴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색 인종인 진보파의 사인방 ("Squad")이라고 불리는 4명의 여자 민주당 당원인 Alexandria Ocasio of New York, Ilhan Omar of Minnesota, Rashida Tlaib of Michigan, Ayanna S. Pressley of Massachusetts 들에게는 "미국을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면 너희들 본 고향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North Carolina의 유세 때는 몇 만 명의 선동된 군중들이 외치는 "Send her back"라고 소리치는 군중을 제지하지 않고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Send her back (내가 온 조국으로 돌아가라)"이라는 구호가 2016년 선거때 사용된 "Look her up"을 대치한 새 구호로 사용될 것 같다.

이런 언어도단의 구호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비난 대상인 세명의 국회의원은 Ilhan Omar만 빼놓고는 모두 미국에서 출생한 의원들이다. 미국 헌법 수정안 14조에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출생한 사람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Naturalized)들은 모두 미국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네 명 중 Omar 의원 한 명만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 와 시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으며 현재 약 25만명의 미국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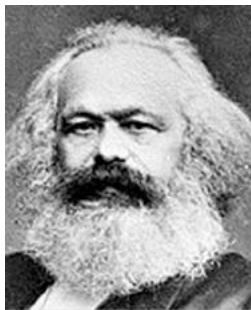
미국 정치에서 정적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로 몰아 붙이는 것은 이민이 처음이 아니라 1940년대 말, 1950년대에 극우의 상원 매카시 의원 (McCarthy)가 남용하였으며 그는 공산주의를 미국에서 축출한다는 미명하에 많은 진보파 지식인들을 공산 당원이라고 상원 소위원회에서 이름들을 밝혀 회생시켰다.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격한 반공주의 "메카디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 상원 매카시 조사단에서 앞장섰던 선봉자는 Roy Cohn이라는 New York의 변호사로 젊었을 때 Trump의 role Model이었으며 결국 그는 많은 불법적인 조사단의 행동 결과로 상원에서 정계 되었으며 변호사 자격증까지 잃어버렸던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 못하고 사회주의를 비방하는데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공산주의는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려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왜곡(歪曲)되고 오인(誤認)된 사상

첫째,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는 공산주의와 달리 모든 재산이 국유화(public ownership)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초기 1945년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실현했던 영국에서도 자본주의자들의 독점을 막기 위하여 국가의 중요한 산업, 예를 들어 전기, 통신, 보건, 철강 등의 중요한 산업은 국민의 대다수가 뽑은 국가 정부가 경영하여야 되고 나머지 산업은 개인과 회사들이 경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산주의 체계는 모든 것이 국가 경영권에 속하고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Karl Marx (1818~1883)



Adam Smith (1723~1790)



Karl Johann Kautsky (1854~1938)

둘째, 현재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존중하고 정권은 민주주의적 투표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는 혁명으로 국가와 정부를 수립하지 않고 평화주의를 신봉하는 것이다. 반대로 공산주의 시조인 Marx나 Lenin은 자본주의 국가를 혁명으로 붕괴시킨 다음 자본주의 잔재가 없어질 때까지 스탈린이나, 모택동처럼 독재 공산주의 지도자가 통치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이론적인 면에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세습적 왕족 국가로 사이버 종교(Cultism) 체제와 같은 것이다.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는 Prague에서 출생한 Karl Kautsky (1854-1938)가 그의 저서 "Social Democracy VS. Communism"에서 주장하였으며 그는 혁명 선동과 독재주의적인 공산주의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는 19세기 산업 혁명 후 자본주의 산업가의 착취를 받았던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지위를 민주주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그의 주목적이었다.

이런 그의 주장 때문에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자본주의(Capitalism) 보다 사회주의를 더욱 적으로 여겼으며 Lenin은 Kautsky 신봉자들을 공산주의의 반역자로 비판하였던 것이다.

Kautsky는 공산주의로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으며 언제나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은 민주주의 국가 설립은 대다수 국민의 복지를 염두에 둔 사회주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자유시장을 확보하여 민주주의적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나 자본가들의 독립 시장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 사회주의는 영국 사회주의 창시자 Robert Owen (1771-1858)의 학설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는 계급 투쟁을 믿지 않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협동 (cooperation) 할 수 있는 자유조합 (voluntary association) 형태를 갖춘 정치형태를 이상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런 이념적 영향 때문에 영국은 벌써 1945년에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Atlee가 수상으로 당선되어 많은 사회

샌더스 상원의원은 2020년 대선에 다시 도전했으며 그와 같이 많은 민주당 후보자들은 Medicaid와 같은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 부자들에게 대한 누진적 상속세 부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 폐지,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들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보자 전 부통령 Biden을 잡으려는 엘리자베스 워렌은 빅 텍의 기업의 분할, 0.1% 부자들에게 대한 부가세, 3조 부과, 5000만 이상의 자산가에 2-3% 자산세 부과, 여기서 더 나아가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최장의 소득계층에 대해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민주당 후보의 사회주의 공약 주장에 대해 민주당을 사회주의 지지 정당으로 몰아내세우며 표를 얻는 전략을 대선의 기본 전략으로 택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자기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면 야당과 악인으로 몰아치며 인종 관계, 이민 문제, 이상기후 현상, 총기사건, 백인 우월주의 등에서 비과학적 정책과 극우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이것을 막기 위하여 극좌로 가고 있다.

이런 극단의 정책과 정치 지도자들은 현재 미국과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핵무기의 확산, 이상 기온 문제, 무역 관계 문제, 난민 문제 등을 이성과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설적이며, 현명하며, 실용주의적 세계 정치 철학의 시조 Aristotle (BC 384-322)이 충고한 것처럼 정치는 Art of possible (문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협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하듯듯이 정말 미국에서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명하고, 인덕 있고, 진실성 있는 타협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미국이 배출한 과거의 위대한 대통령, George Washington의 정직성, 겸손, Thomas Jefferson의 이지와 해박한 학식, Abraham Lincoln의 인성, 융합성, Franklin Roosevelt의 통솔력, 위대한 구상을 추모하며 따르려는 후보자의 당성을 바란다. 그러면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질서가 찾아올 것 같다.

미국에서도 1925년 경제 공황 이후 1930년 1940년대 Franklin Delano Roosevelt의 "New Deal" 정책으로 많은 사회주의 Program인 Social Security, Public Health, Public Education, Welfare System 등이 채택되었으며 노동조합 인원과 Minimum Wage 도 추가되었다. 현재 아무리 극우 보수, 자본주의 신봉자들도 자기 이념 때문에 social security check를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Public Responsibility와 Collection Activism을 인정 안 하며 그건 사회는 온전할 수가 없다.

이런 오랜 역사의 사회주의 발전과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0년 대선 중에서 "사회주의"가 논쟁될 것이다. 2016년 대선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한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가 사회주의 정책인 모든 국민의 건강 보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무료 대학 교육을 주장하여 너무 급진적 정책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2020년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샌더스 영향인지 사회주의적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 2019년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젊은 세대 사이에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18-29세 유권자들 540%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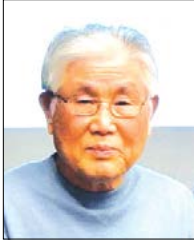
샌더스 상원의원은 2020년 대선에 다시 도전했으며 그와 같이 많은 민주당 후보자들은 Medicaid와 같은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 부자들에게 대한 누진적 상속세 부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 폐지,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들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보자 전 부통령 Biden을 잡으려는 엘리자베스 워렌은 빅 텍의 기업의 분할, 0.1% 부자들에게 대한 부가세, 3조 부과, 5000만 이상의 자산가에 2-3% 자산세 부과, 여기서 더 나아가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최장의 소득계층에 대해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민주당 후보의 사회주의 공약 주장에 대해 민주당을 사회주의 지지 정당으로 몰아내세우며 표를 얻는 전략을 대선의 기본 전략으로 택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자기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면 야당과 악인으로 몰아치며 인종 관계, 이민 문제, 이상기후 현상, 총기사건, 백인 우월주의 등에서 비과학적 정책과 극우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이것을 막기 위하여 극좌로 가고 있다.

이런 극단의 정책과 정치 지도자들은 현재 미국과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핵무기의 확산, 이상 기온 문제, 무역 관계 문제, 난민 문제 등을 이성과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설적이며, 현명하며, 실용주의적 세계 정치 철학의 시조 Aristotle (BC 384-322)이 충고한 것처럼 정치는 Art of possible (문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협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하듯듯이 정말 미국에서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명하고, 인덕 있고, 진실성 있는 타협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미국이 배출한 과거의 위대한 대통령, George Washington의 정직성, 겸손, Thomas Jefferson의 이지와 해박한 학식, Abraham Lincoln의 인성, 융합성, Franklin Roosevelt의 통솔력, 위대한 구상을 추모하며 따르려는 후보자의 당성을 바란다. 그러면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질서가 찾아올 것 같다.

전 쉐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전 재미 한국정치학회 회장



이회백 (의대 61)

<워싱턴주(시애틀) 동창회, 7월 SNU 포럼>

이민과 원주민 우선주의 (Nativism)

북미 대륙의 원주민들은 인디안들은 1620년에 온 청교도를 시작으로 유럽 이민들이 가져온 총, 병균, 철에 의해 거의 멸종 되다싶이 되었고 18세기 말에는 WASPO로 약칭되는 북서구 백인 개신교인들이 북미 대륙의 원주민이 되었다. 1830년에 감자 기근으로 애란인이 많이 들어오자 먼저온 개신교인들은 이들을 배척하게 되고 카톨릭 애란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시침을 뱉고 나는 모른다고 해서 이들을 Know Nothing Party 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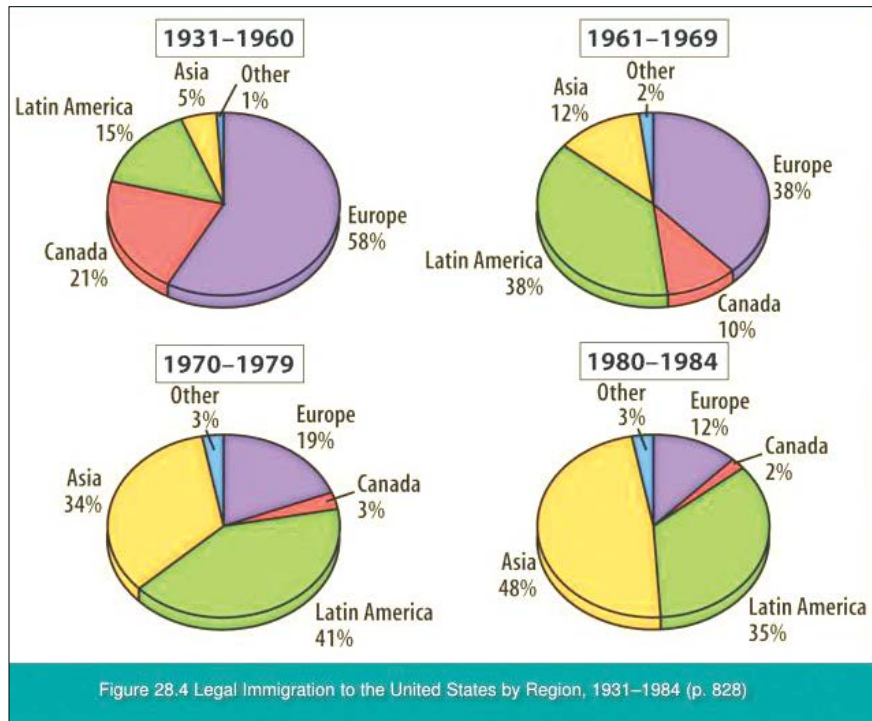
1849년 Gold Rush와 대륙횡단 철도 노동력의 필요로 값싼 중국인을 "수입"했는데 1869년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되어 중국인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는데도 돌아가지 않자 중국인 배척 운동이 일어났다. 결과는 1882년에 제정된 Chinese Exclusion Act로 중국인만을 겨냥한 이민 저지법을 만들었다. 1898년 하와이가 미국 영토로 편입되자 하와이에 있던 일본인들이 임금미 두배인 캘리포니아로 몰려오자 이번에는 일본인 배척 운동이 일어났다. 동시에 동쪽으로는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력의 수요가 늘어나 이태리인, 폴란드인, 헝가리인, 러시아 유대인 등 남부와 동부 유럽인들이 몰려들자 1894년 이들의 이민을 막자는 Immigration Restriction League가 생기고 1917년 Literacy Test Law가 통과되어 영어권이 아닌 이민을 막으려고 하였다. 1924년엔 Johnson-Reed Act 라 하여 국적별로 쿼타제를 실시하여 유럽인 외 다른 나라 이민은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극심한 이민억제법을 제정했다. 1930년에 시작된 대 경제공황 그리고 1939년에 시작된 2차세계대전으로 인해 1945년까지 이민은 극히 저조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의 이민 경향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첫째로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몰려왔다. 러시아 유대인들이 새로 탄생한 이스라엘에 가지않고 미국으로 몰려온 것이 그 한 예다. 오늘날 미국에 사는 유대인 수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수와 거의 맞먹을 정도가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는 2차대전 후 미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누리게 되어 이민을 받아드릴 수 있는 아량이 생겼다. 곡간에서 인심나 격이다. 셋째는 냉전에 이기기 위해 외국인에게 후한 정책을 쓰게 되었다. 우선 1943년에 일본과의 전쟁에 동맹국인 중국을 더 이상 자극할 수 없어 Chinese Exclusion Act를 폐기했다. 냉전의 산물인 반카스트로 쿠바인 월남전으

감정을 잘 이용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유럽에서는 이미 반이민 정서가 널리 퍼지고 있었다. 유럽은 2차대전 전에는 이렇다할만한 이민 문제가 없었다. 2차대전 후 유럽 여러 나라가 소유하던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자 식민 정권을 위해 일하던 식민지인들이 유럽으로 몰려 오게 된 것이 유럽 이민문제의 시작이다. 화란에는 화란을 돕던 인도네시아인 Moluccans, 불란서에는 Algeria 전쟁 당시 불란서군과 같이 싸운 알제리아인 Harkis, 지구상에서 해 지는 날이 없다고 자랑하던 영국에는 전세계에서 식민지인들이 몰려들었다. 파키스탄 이민 후손이 런던 시장에 당선된 것은 이 덕이다. 이미 1983년

로 인한 소위 "Boat People"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흑인 차별을 금지한 Civil Rights Act와 함께 인종차별적인 이민 정책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65년에 통과된 Hart-Celler Act는 이를 반영한 획기적인 이민법이다. 즉 이때까지 미국이 견지했던 원주민 우선주의를 버리고 이민 환영주의로 대전환 한 것이다. 이법은 종래의 국적별 쿼타제를 없애고 가족 이민을 허용하고 고급기술직 이민을 늘리는 이민법이다. 이 법을 논의할 당시 이법이 통과되면 미국은 외국인(유색인)에게 수문을 열어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경고는 묵살되었다. 결과는 유럽인 이민은 급격히 감소하고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인 이민은 급속히 증가했다. 이 법을 작성한 입법자들이 이러한 결과를 예측했다면 이 법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1970년 후반부터 유럽과 일본이 부흥하자 미국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하고 뒤따라 중국의 경제력이 강해지자 원주민 우선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또 합법적인 이민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의 멕시코 불법이민자의 "침입"으로 고심하던 미국은 이들을 사면시킴과 동시에 불법이민 고용자를 처벌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법이민을 막으려고 만든 1986년의 이민법은 실패로 끝났다. 2017년 트럼프는 이러한 반이민



japs keep moving

로 인한 소위 "Boat People"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흑인 차별을 금지한 Civil Rights Act와 함께 인종차별적인 이민 정책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65년에 통과된 Hart-Celler Act는 이를 반영한 획기적인 이민법이다. 즉 이때까지 미국이 견지했던 원주민 우선주의를 버리고 이민 환영주의로 대전환 한 것이다. 이법은 종래의 국적별 쿼타제를 없애고 가족 이민을 허용하고 고급기술직 이민을 늘리는 이민법이다. 이 법을 논의할 당시 이법이 통과되면 미국은 외국인(유색인)에게 수문을 열어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경고는 묵살되었다. 결과는 유럽인 이민은 급격히 감소하고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인 이민은 급속히 증가했다. 이 법을 작성한 입법자들이 이러한 결과를 예측했다면 이 법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남아프리카는 백인 Apartheid 정권이 몰려가고 다수 흑인 정권이 들어서자 가난과 전쟁을 피해오는 다른 나라 아프리카 흑인 이민 문제로 곤난을 겪고 있다. 피담 흘려 백인 보수 정권을 몰려쳐서 이제는 조금 잘 살게 됐다고 기뻐했는데 정작 열매는 다른 나라에서 온 흑인들에게 다 빼앗겼다고 흑인 원주민이 흑인 이민자를 배척하는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민을 막지 못한 탓을 Nelson Mandela에게 돌리고 그를 원망하는 사람까지 있다. 원주민 흑인과 이민은 흑인간에 폭력사태까지 벌어져서 경찰과 법원은 못본척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인 나라가 남아프리카다.

여러 나라의 복잡한 이민 문제를 살펴보면, 현재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반이민정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적인 삶의 조건의 차이가 있는 한 살기 어려운 곳에서 살기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인간을 막기는 힘들 것이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공기를 막을 수 없듯이, 그리고 지구는 너무나 좁아졌고 통신과 교통은 날이 발전하는 세상이라 특징지역에 특정 종족이나 문화, 종교를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민의 나라라고 자처하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7백40만을 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2백만을 넘을뿐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결국 원주민 우선주의 또는 원주민 보호주의는 점점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9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지역 동창회 소식 및 동문 동정

남가주 동문가족 270명 뮤지컬 관람, 19회 '할리우드보울 가족의 밤' 와인과 다과로 즐거운 한 때

남가주 총동창회



행사 참가자 기념촬영

【글: 이종호 (인문대 81) / 사진: 홍선례 문화국장, 김옥권(미대 76), 신호근(자연대 81)】

남가주총동창회(회장 한귀희)의 주요 연례 행사가 된 할리우드보울(Hollywood Bowl) 가족의 밤 행사가 지난 7월 27일 토요일 오후 LA 할리우보울 입구 피크닉 장소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를 보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한귀희 회장님과 민일기 차기회장은 사실상 무제한 와인을 제공했고 한인 타운 유명 음식점에서 갖 배달된 따끈따끈한 맞춤 도시락도 행사의 푸 집합을 더했다.



노명호(맨앳 왼쪽) 미주동창회 차기회장과 공대 동문

동문 가족들은 1부 피크닉 행사가 끝난 후 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겨 8시부터 시작된 인기 뮤지컬 '인투 더 우즈(Into the Woods)'을 함께 감상했다. 이 뮤지컬은 메릴 스트립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으며 이날 공연엔 한인 배우도 2명이나 나와 더 관심을 끌었다. 이번 단체 뮤지컬 관람을 위해 염인숙 가족

의 밤 위원장은 티켓 270매를 어렵사리 예약, 구매했고 각 단과대동문회 회장 및 임원들의 협조 속에 무난히 소화되었다. 또 이날 행사를 임원진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두세 시간 전부터 나와 테이블 세팅, 다과 준비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단체 테이블

이번 행사를 총괄 지휘한 한귀희 회장은 "여러 임원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큰 행사이다 보니 나름 미흡한 점도 있었고, 예정됐던 불꽃놀이도 없어서 다들 아쉬웠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너그럽이 이해해 주시



테이블 세팅에 여념이 없는 임원들

씨는 Tenor Lead로, Soloist들의 반주자로 활약했고, 피아노 반주자 김연정 씨와 타악기 반주자 박상연 씨는 합창음악을 풍성하게 표현하는데 기여했다. 이날 무대는 아이리쉬 곡들로 시작됐다. 귀에 익은 "Danny Boy", "Johnny I hardly knew ye", "What Shall We Do with a Drunken Sailor?"가 연주되었다. 다음 무대는 정겨운 한국 가곡과 동요로 엮여졌다. "즐거운 나의집"과 "고향의 봄", "오빠 생각", "나를 깨는 처녀" 들을 불렀다.

마지막 순서 합창은 정열적인 스페니쉬 곡들, "El Vito", "La Cucaracha", "Besame Mucho"을 노래했고, Spanish Flamenco Dancers가 이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어 무

고 오�히려 격려까지 해주셔서 더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남가주총동창회의 주요행사가 된 할리우드보울 가족의 밤은 19년 전 생활과학대(구, 가정대) 동문회가 주축이 되어 한 여름 밤 가족이 함께 볼만한 공연 프로그램을 선정, 단체로 표를 구입하고 공연 전에 동문 가족끼리 피크닉을 하며 친목도 다지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벤트였지만 여타 동문들의 열화같은 호응에 힘입어 일찌감치 전체 동문회 행사로 자리매김 했었다.



최경석 (사대 80), 최용준 (수의대 81), 이종호 (인문대 81), 신호근 (자연대 81), 강호석 (사대 81)



가족 단위로 많이 참가했다.

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합창 중간 무대로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씨의 "Liebesleid (Love's Sorrow)", "Csardas (Hungarian Gypsy Dance)", "Carmen Fantasy", 쉐로리스트 조은아의 "수선화", "Caro Nome from Opera Rigoletto"로 특별 연주가 있었고, 합창 중 박인옥 씨의 Melodica 연주, 조은아 씨와 이태훈 씨의 이종창, 두 여린이 특장으로 합창 공연을 돋보였다.

2019년 합창 공연은 열광적인 관중들 앵콜로 부른 "우리는"과 "관중과 함께 부른"고향의 봄"으로 끝을 맺었다.

각종 게임과 댄스 등으로 동문과 함께 정겨운 하루

벤쿠버 동창회, 야유회 개최

【기사: 회장, 권오을 (상대 56)】
지난 2019년 7월 13일 (토) Lower Hume Park, New Westminster에서 2019년 서울대 동문회 야유회를 57명의 선후배 동문들이 참석하여 아주 풍성하고 즐겁게 가졌습니다. 날씨도 아주 이상적으로 좋았고, 장소도 훌륭하여 커다란 지붕 밑에서 편안히 앉아 훌륭한 뷔페 점심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락게임도 가졌는데 재미 있는



빙고 게임도 있었고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오재미 던지기' 게임은 스릴도 있고, 다들 많이 웃으면서 "오!! 재미...난다!!"라고 탄성을 내었습니다. 형식 흥미진진한 도어 프라이즈 (door prizes)도 여러 따신 분들과 저처럼 운 없는 사람의 희비가 오가곤 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Group Dance을 하였는데, 강사가 Zumba같은 댄스를 모든 동문들이 아주 재미있게 참석할 수 있게 시종 웃기면서 잘 리드를 하였습니다. 강사 (젊은 여



즐거워 오락 게임으로 분위기 리드

성)가 남자 동문을 "오빠!" 라고 부르니 좋아서 환성을 내는 남자 동문들과 생이 나서 탄성을 지르는 여성분들 간에 오가는 웃음도 추억스러웠습니다. 이런 동문의 모임을 더 자주 갖자고 진지하게 권유하시는 동문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야유회 행사를 위하여 조석기 부회장, 황보명호 총무, 석윤구 재무, 손신애 동문, 또 여러 여성 동문님과 가족 분들이 하루 중일

커피 제공, 수박을 제공하시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석윤구 부부 (손신애 동문)가 몇 달 동안 갖가지 준비를 하신데 대하여 동문 일동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9월 10일 Uncle Willy's Buffet (#100, 6411 Nelson Ave, Burnaby)에서 하는 동문 점심입니다. 대략 1200시 경에 시작 하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창회가 젊어졌다. 선·후배간 교류와 소통이 많아졌다."

워싱턴 DC 동창회, 2019 이사회회 총회 개최



참가자 기념촬영

【기사제공: 한정민 (농대 87)】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워싱턴 지부는 (회장 정명희)는 지난 7월 13일 (토) 오후 5시에 비엔나에 위치한 우래옥에서 2019년 이사회회를 겸한 총회를 가졌다. 50여 명의 워싱턴 지역 동문들이 참석한 행사는 1부에 이사회 및 총회, 저녁 식사를 통한 친교 후 2부에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지능와 혁신을 주제로 이관후 동문 (공 87)의 특별강연으로 진행되었다.

1부는 정 회장의 개회선언과 교가 제창에 이어 지난 1년 (2018년 7월~2019년 6월까지)동안의 회계 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지난 1년동안 진행된 여러 동창회 사업과 활동 (송년모임, 통우드 가든 방문, SNU 하이캉)에 관한 영상 보고가 있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학번 모임인 <샤로수>의 매달 정기 모임과 75~99학번 모임인 <아크로폴리스>의 다양한 동호회 (영화, 골프, 산행, 와인 클럽 등) 및 다양한 번개 모임이 매달 1~2번씩 진행되면서 동창회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선·후배 간의 세대 교류가 활성화된 모습이 괄목할 만한 변화다.

이어서 다가오는 1년 (2019~2020년)동안 계획한 다양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인준이 있었다. 다가오는 행사로는 Wolf Trap에서 Beach Boys 공연관람 (8/25), 가을 전 동문가족 피크닉 (10/12), 장애후원 음악회 (10/26), 송년 파티 및 장학금 수여 (12/15), 동문가족 Williamsburg 방문 (봄) 등이 계획되어 있다. 기타 안건으로 지난 이사회에 상정된 '후원금 요청에 대한 처리 방법과 동창회 명부에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이사회에 인준을 요청하였다.

식사 시간에는 몇 달 만에 만난 선·후배들과 그동안의 안부와 소식을 나누는 반가운 담소가 이어졌다. 5년전 자녀들이 사는 California로

2부 순서로는 American 대학교의 교수인 이관후 동문 (산업공학 87)이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지능와 혁신'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동문은 '인공 지능과 사물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인공 지능은 스마트 스피커 및 자율 주행차 등을 통해 소비자화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의사, 법조인, 회계사 등의 전문가 영역에 급속히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기에 이에 대비하여 교육시스템, 노동 및 복지관련 정책과 제도의 혁신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한 참석자가 '인공 지능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로봇에게 직업을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 섞인 질문을 했다. 이에 강사는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 부족, 윤리적 이슈 및 의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답하면서 사물 인터넷의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통제 기능을 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에, 4차



이관후 동문 (산업공학 87)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지능와 혁신'이란 주제로 특별강연

산업혁명은 일자리 위협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경제 규모를 키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감의를 마무리했다. 계획보다 시간이 늦어졌지만, 강사의 능숙하고 재미난 강연, 인공 지능이란 흥미로운 주제, 서울대인들의 지적 호기심이란 3박자가 잘 버무려져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다음 이사회는 가을에 있을 예정이다.

남가주 동문 합창단 공연 성황리에 개최

장진영, 제갈소망, 김연정, 박상연 동문, 합창 음악을 풍성하게 표현



【기사: 김옥경 (가정 60)】
지난 일요일, 7월 14일 LA 다운타운 Colburn School Zipper Hall에서 거행된 서울대 남가주 동문합창단 공연은 기대하는 관객들로 지퍼홀과 발코니가 넘었다.

이 공연은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국 교포들이나 다른 민족들이 세대 차 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됐다. 음악감독 겸 지휘자인 장진영 씨의 면밀한 연출로 기획된 공연은 합창, 기악, 댄스를 사이 사이에 엮어 청중의 시선을 이끌고 감성에 호소할 수 있었다. 부지휘자인 제갈 소망

“이민 정책은 결국 국가 이익이 기준”

위싱턴주 동창회, 7월 SNU 포럼 개최



이회백 박사

【기사: 김재훈 SNU 포럼 회장, 시애틀】 위싱턴주 서울대 동문회 시니어 클럽(회장 김재훈)이 지난 13일 뉴캐슬 도서관에서 개최한 'SNU 포럼' 7월 행사 강사를 맡았던 이회백 박사는 무려 90장이나 되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이민 역사와 정책, 문제 등을 총망라해 다뤘다.

모교 의대 출신으로 외과의사는 물론 마취 전문의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이 박사는 워낙 많은 책을 읽는 독서광으로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이 박사는 이날 이민·난민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 한국과 영문 서적 등을 모두 뒤져 포럼 자료를 만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박사는 "이민과 난민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개인 대 개인 간에는 '도덕의 문제가 개입되지' 국가의 문제에서는 도덕이 아닌 '국가 이익이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박사는 "각국의 이민정책도 당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느 나라보다 이민을 환영하는 나라로 인식돼온 미

국은 이민 문제에 있어서 부침의 역사를 갖고 있다. 1849년 '골드러쉬와 남북전쟁' 직후 대륙횡단 철도건설을 위한 노동력이 필요해 많은 중국인을 받아들였을 때는 친이민정책을 썼다. 하지만 그들이 필요없게 되자 '중국인 입국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을 만들어 중국인 이민을 금지했다. 1924년에는 모든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법을 통과시켜 유색인종의 이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후 1965년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은 이민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펴왔다고 이 박사는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익 우선'이라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추진되면서 '반이민정책'으로 회귀한 상황이다. 이 박사는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미국 이민정책은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1903년부터 시작된 한인들의 미국 이민사, 유럽의 난민문제, 사우스아프리카

뉴욕지역 동창회, 정기이사회 및 총회 개최

추계골프대회 10월 9일, 2019년 송년회 12월 7일 토요일에 하기로



참석자 기념 촬영

【기사: 허유선 특별사업 국장】

제 41대 뉴욕지부 (회장 조상근, 법대 69) 정기총회 및 이사회가 7월 16일 포트리 더블유 호텔에서 28명의 단대 회장단과 이사들의 참석으로 거행되었다. 1부 순서로 40대 손대홍 (미대 79) 전임 회장과 한태진 (의대 58) 전임 이사장의 건배사로 만찬이 있는 후, 임창우 (상대 79) 부회장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되었다.

손대홍 전임회장은 이임사에서 일년동안 많

은 후원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준 골든 클럽 선배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골든 클럽 손경택 (송대 57)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뉴욕 동문들의 고령화가 심해져 골든 클럽 동문들이 대부분 뉴욕지부 동문인 점을 우려하고, 적극적으로 젊은 뉴욕지부 동문들을 영입 할 것을 제안하였다.

40대 회기의 감사보고와 감사수 (약대 64) 장학위원장의 장학기금 경과 보고가 있는 후, 41대 조상근 (법대 69) 회장이 손대홍 전임회장과 한태진 전임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총동창회 각 행사 안내 및 동창회에 대한 후원과 협조 다짐

남가주 미대동문회



【기사: 남가주 미대 동문회】

남가주 미대 동문회 회장 백혜란(미대 70)의 김화자(60), 손남수(60), 현혜명(61), 김경옥(61), 김구자(61), 신정연(61), 신덕재(61), 윤태자(62), 서동현(67), 백인분(67), 한귀희 (68), 장원경(73), 이명규(73), 신희정(73), 노성인(73), 김영태(73), 김경애 (83) 등 18명이 7월 18일 오후 12시 LA 올림픽가에 있는 뉴서울 호텔 한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먼저 한귀희 총동창회장의 총동창회 행사 보고 및 앞으로 있을 전체 모임의 안내와 함께 시작된 이 모임은 지난 5월 제4회 옥션행사에서 11명 작가 23점의 작품이 출품 되었

고 그 중 13점의 작품이 판매 되었으며 판매된 금액 중 일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기금의 후원금으로 보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 앞으로 있을 헬리웃블 음악회(Into the Wood)의 프로그램과 Labor Day 가족 캠핑의 자세한 소개로 명실공히 미대 전동문이 총동창회의 회장이 속한 단대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다 하자는 올해 초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어 10월 19일~10월 30일에 있을 동문전 안내와 동문전 이후에 있을 모임 안내가 있었다. 텍사스에서 이주한 새동문 백인분(미대 67)의 소개와 함께 다음을 기약하며 모임이 끝났다.

카 공화국의 흑인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결국 이민이나 난민이란 문제는 인간, 즉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2019 SNU 포럼 발표 예정자
▶ 8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Summer Picnic)
▶ 9월 - TBD: 세계적으로 유명한 Concert Hall 및 Opera House로의 여행 (Journey to

The World Famous Orchestra Concert Halls and Opera Houses)
▶ 10월 - TBD: 박길호 팝칼럼니스 (SBS 이숙영의 러브 FM 팝 해설자): 추억의 팝송 해설
▶ 11월 - TBD:
▶ 11월 (강의 및 중강 파티 장소) - TBD: 장소 제공하실 분 접수 (선착순)
▶ 12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Yearly General Meeting)

조상근 (법대 69) 동문, 제41대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 취임



조상근 (법대 69)

조상근 (법대 69) 동문이 제41대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다.

(주) 대우 차장
UTC Carrier Asia Pacific 이사
AMCO International, Inc. 사장 - NJ
Boo Ok 산업(주) 사장 - Seoul

3부 순서인 이사회에서 정해민 (법대 55) 이사장은 그동안 뉴욕지부 회장단 구성과 선출 방법에 대한 한계점을 언급하며, 점진적 고령화 되는 동창회 회장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다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까지의 가나다 순서의 단과대학 회장 선임 방법보다, 본인의 의지로 봉사하고자 하는 동문에게 기회를 부여하자는 방법을 제안해, 이사회에 모인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냈다.

조상근 회장은 이에 따른 상임 이사회를 조만간 열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동창회의 활성화로 뉴욕 동창회의 장학수여자 등, 젊은 후배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창회 기금 확보, 동창회 홍보 기능 강화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안에, 10월 9일 추계골프대회 (골프위 원장: 김정필, 공대 71) 와 2019년 송년회를 12월 7일 토요일 4시 30분부터 가질 예정이며, 특별히 이번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음대 동창회 (회장 이준희 95)에서 예년과 같은 작은 음악회 협조하기로 하였다.

메달리스트 김선호 (사대 59) 동문, Raffle 대상 50" TV 안석봉 (문리 58) 동문이 차지

오레곤 동문회, 골프모임 개최



전병택 (상대 65) 회장, 왼쪽 파란색 T

【기사제공: 회장 전병택 (상대 65)】 오레곤 동문회 모임과 골프대회를 지난 7월 13일 (토) 에 PGA/LPGA 코스인 Reserve Vineyard and Golf Course에서 가졌습니다. 메달 리스트 우승배는 김선호 (사대 59) 동문이, Raffle의 대상인 50" TV는 안석봉 (문리 58) 동문이 차지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적은 동문이 참가 했지만, 신임 신용남 미주동창회장의 찬조금 등으로 많은 상품과 음식으로 화기가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오레곤에는 90~00 학번 동문이 많이 있으나 (40~50여 명), 동문회에 대한 "무관심" 및 "무참석"으로, 몇 년 사이에 동문회의 활동이 많이 위축 되었으나, 여러 선

배 동문이 열성을 갖고, 동문회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문회의 "조찬회" 모임도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레곤 서울대 동문회는 1981년에 결성되었으며, 이 지역에 사시는 서울대 동문은 약 80~90여 명 됩니다.



맨좌측, 메달 리스트 김선호 (사대 59) 동문



Raffle의 대상인 50" TV를 탄 안석봉 (문리 58) 동문, 빨간색 T



동문 가족 38명, 좋은 날씨에 선후배 간 즐거운 시간

시카고 동창회, Ravinia 야외 음악회 참여



【기사: 회장 김병윤】

7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Ravinia(Highland Park, IL) 야외 음악회에 동문 가족 3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푸짐한 음식과 Wine을 마시며, 마침 좋은 날씨에 선후배 동문 간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주관하여 주신 이영우 동문께 감사드립니다.



Ravinia Festival

공연은 Conductor Marin Alsop가 지휘, Chicago Symphony Orchestra Leonard Bernstein: Man For All Music. Jamie Bernstein(Daughter of Leonard Bernstein)의 해설은 감명적이었습니다. 귀에 익은 West Side Story 중의 노래들이었습니다.

시카고 동창회 2019년 장학생 선발 공고

본 동창회에서는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찾아 그들의 향학열을 고취시키고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요강에 따라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5~7 명
- 장학금액 : 1인당 \$2,000
- 응모자격 : 시카고 및 인접지역 (IL, WI, IN, MI, IA)에 거주 (permanent address) 하는 자로서 High School Senior,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유학생 포함)에 한함

• 응모마감 : 2019년 9월 20일 (금요일)까지

- 구비서류 : 1. 원서 1통 (원서 용지는 www.snuachicago.org 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음)
2. 추천서 1통 (소속 학교 교사 / 교수)
3. 성적증명서 (transcript)
4. Essay on the reasons for applying and future personal aspiration, no more than 2 Pages)

• 원서제출처 : 원서는 이메일로 보낼 것: 주소, snuaachicago@gmail.com (Subject 칸에는 학생 이름을 쓰고, e-서류가 아닌 경우는 scan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동창회 e-mail 주소로 보내주시도록 요청드리기 바랍니다.)

• 비고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수여식(12/8/19)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사유없이 불참시에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시카고 동창회 장학생 선발위원회 위원장 김병윤



행사 참가자 기념촬영



【기사 제공: 김병윤(상대 65)
시카고 동창회 (회장 김병윤)는 6월 8일 (토) Elk Grove에 있는 Busse Woods에서 하계 야유회를 개최했다. 좋은 날씨에 120여 명이 모여 동문들간의 우의를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는 유난히 많은 비에 초록이 더욱 푸르듯 동문 여러분의 마음도 더욱 푸르려 청춘을 되돌려 꿈을 이루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는 회장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동문과 나누며..



GPI 상주 예술가 공연



한재은 동문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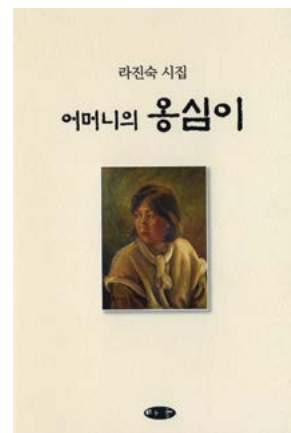
고참 선배님 송재현(의대 46) 동문, 문병훈(사대 47) 동문부터 어린 후배 정명철(사대 96), 봉윤식(사대 96), 양윤식(의대 12) 동문까지 참석하여 학창 시절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GPI 상주 예술가 공연으로 설장구, 사물놀이, 단소, 삼모판굿은 야유회를 흥겨운 분위기로 만들었다. Performance Video Playlist (4 videos): <https://www.youtube.com/play->

list?list=PLkmpcFheyAhhdFFoCOC9y-Hx0PNqtghjxO 김훈태(사회대 84) 총무의 유머있는 빙고 게임으로 동문 모두 푸짐한 선물을 받으며 아쉬움을 갖고 야유회를 마쳤습니다. 성공리에 끝나게 됨은 모든 동문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라진숙 시집 “어머니의 응심이”출판기념회
전 동창회보 주필 라철삼 동문 부인



라진숙 작가



【기사: 백옥자 조직국장】

라철삼 (문리대 64) 동문의 부인 라진숙님의 시집 “어머니의 응심이”출판기념회가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 LA 작가의 집(대표 김병연, 공대)에서 열렸다.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와 시와 시인들 그리고 서울대 출신들의 모임인 낙산회와 초우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모임은 박영남 목사(문리대의) 개회기도 예배로 시작해 오홍조(치대) 전 미주동창회 회장의 축사, 배효식 교수(사대의) 격려사에 이어 라진숙 여사가 함께 출연한 열린 오토하프타임 연주와 스프라노 아귀미 씨의 축가, 시낭송 등의 순서

로 진행됐다. 문학시대 창간 30주년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현모양처의 자태가 풍기는 라진숙님은 한국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바 있는데 이번에 출판한 시집 안에 그가 그린 미술 작품들이 함께 들어 있다.

이날 모임에는 그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LA의 시인들과 서울대 동문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어머니의 응심이”는 애잔한 우주, 삶의 곁집을 벗어두고, 산의 얼굴 조각나고, 부서지고 흩어 되어, 눈물의 강, 화석 되어 등 5부로 나뉘어 모두 87편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출판기념회에 축하객과 기념촬영 (첫째 줄 가운데 어린이 안은 분이 라진숙 작가, 라철삼 동문)

부 부

라진숙
어두운 터널 속처럼 지내고
이제 가을 들녘 뒤로 노을도 보았다네

남으로 만나 남으로 사는가
남으로 만나 남으로 사는가
남으로 태어나 남으로 살다가
남으로 만나 우리가 되었네
달랑 차표 두 장 받아 쥐고
달리는 세월 올라 탔다네
차창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
은빛 호수에선 고기도 낚았지
잘생긴 새 마리 고기는 흐릿함 그것이었어
여름 정마에는 장화도 신겨주고
우산도 되어 주고

6.25전쟁 69주년 “범 한민족 평화통일 걷기” 개최

뉴잉글랜드 각 학교 동창회, 한인단체 및 교민들이 주최



6.25 전쟁 69주년 평화통일열명 걷기 참가자들

【기사제공: 이강원(공대 66) 회장, 사진제공: 김정선(문리 66) 차기회장/산우회 회장】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다른 대학 동창회와 그리고 보스턴지역 재미동포들과 함께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범 한민족 평화통일 걷기 행사”를 지난 6월 25일 개최하였다. 보스턴 외곽 노스 이스턴에 위치한 보더랜드(Borderland) 국립공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연세대 동문회, 한양대 동문회 등 한국 대학 동창회 동문들, 보스턴 한인회,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등 여러 재미 교포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한국 정부측에서는 보스턴 총영사

관에서 총영사가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69년전에 있었던 한국 전쟁의 비극을 되새기며 다시는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였다. 한편, 이날 김용현 총영사는 평화통일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여러 관심사를 걸으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공동행사를 총괄하여 준비한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이강원 (당시차기회장(공대 66)은 “보스턴 지역의 여러 한인 단체가 함께 오늘의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참여하여 평화 염원 행사로서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며 참가자 모두에 감사드린다고

서치원 동문 'Home Concert'와 '공대 50년' 책자 발행 논의
남가주 공대 동창회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지난 7월 10일 공과대학 남가주 동창회(회장: 조정시, 공대 60)에서는 Buena Park에 위치한 ARIA 한식당에서 월례 모임을 가졌다. 조정시 회장은 모인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19년도 7월 이후 행사 일정을 발표했는데, 7월 27일 Hollywood Bowl 가족의 밤, 8월 24일 Home Concert, 8월 31일~9월 2일 Labor Day 가족 캠핑, 10월 26일 월로선배 초청 오찬, 11월 공대 추계 골프대회, 12월 정기총회 및 송년회 등 남가주 총동창회 행사와 공대 동창회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8월 24일, 서치원 회장 자택에서 공대 후원으로 열릴 Home Concert와 2018년도에 시작하여 곧 출판될 “공대 50년” 책자 발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입 지출 현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뉴욕에서 개최된 미주동창회 제28차 평의원회에서 노명호(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공대 61) 회장이 차기 미주동창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날 모인 40여 명의 동문과 친지들은 축하를 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강원 (공대 66) 동문, 제17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취임



이강원 (공대 66)

이강원 (공대 66) 동문이 제17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다.

2021년 6월, LA로 오는 미주동창회, 그리고 새 미주동창회장과 새 임원진들이 전개할 활약상에 자못 기대가 크다.

▲ 참석 동문
조정시(공대회장, 금속 60), 김경무(재무, 우수 69) 등의 임원진과 한효동(건축 58), 이해영

글랜드 동창회 산우회가 준비한 피자과 수박, 그리고 시민협회가 준비한 칩 등을 들며 동포들끼리 친목을 나누었다.

이날 모임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준비한 서울대 뉴잉글랜드 산우회 김정선 회장(문리 66)은 볼스한 날씨에도 행사가 무사히 성황리에 종료되고 걸기 행진을 마치고, 피자 수박 점심까지 마친 후 비가 내리자 “우리들의 평화 염원과 정성에 자연도 화답하였다” 며 안도의 마음을 표했다.



2019. 6. 25. 평화통일걷기모임에서, 김계숙 동문과 태극기를 든 손자 모습이 앞에 보인다.

김회장은 내년에도 보스턴 교민들이 합동으로 범 한민족 평화통일 걷기 행사를 계속하고자 제안하였다.

▲ 참가자
모정자(문리 50), 김대식(공대 52), 김경일(공대 58) 부부, 정정욱(의대 60)/이길자, 김문수(수의 60)/김계숙(간호 63) 및 손자, 박현자(의대 62), 정해숙(간호 66), 전태선(간호 69), 정태영(문리 71)/이영인(사대 74), 이재봉(공대 72)/한수옥, 김용현(사회 84), 임영인, 이경혜/Mr. Dong, 김성혁 부부 및 자녀, 김우혁, 함해란, 이영애, 이충시, 이강원(공대 66), 김정선(문리 66), 기타 몇 분들이다. (무순, 존칭 생략)

약력

모교 공대 졸업후 설계 회사에 근무하다 1976년 도미, 뉴저지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그리고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 도로공학 박사 학위 취득. 1982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도로 및 교통망 구축에 기여 함. 1985년 로드 아일랜드 주립대학교 (URI)에 재직하면서 교통 및 도로 에너지 연구에 참여. 1992년 Transportation Research Center를 설립하고 Transportation Forum을 시작 함.

1993년 재미도로교통학회를 조직하여 회장, 2007년 KSEA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과학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 2011년에는 재미건설기술환경 학회를 조직해서 회장, 2014년 북미 한인 대학교수협회 회장으로 미국, 캐나다, 한국의 과학, 기술, 학문의 상호 발전에 공헌.

전기 56) 등 전 공대회장 노명호(토목 61), 서치원(전자 69), 김병연(우수 68) 등 남가주 전 총동창회장, 그리고 이탁성(금속 56), 장기창(금속 56), 강희창(토목 57), 김병원(자연 57), 박찬근(금속 57), 이장훈(자연 59), 한홍택(기계 60), 최경홍(화공 60), 김윤호(토목 62), 허훈(기계 67)

김수영 (사대 57) 동문, 제열두툼 민초 해외문학상 대상 수상



김수영 (사대 57)

【출처: 미주한국일보】

애나하임에 거주하는 시인이며 수필가인 김수영 (사대 57) 동문이 '제12회 민초 해외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민초 해외문학상은 캐나다 캘거리 거주하는 이유식 시인이 해외동포들을 위한 문학상이 부족함을 깨닫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미주에서는 고 배정용 시인(제4회), 워싱턴 DC의 최연홍 박사(제10회)가 각각 받았다. 김 씨는 미주 지역 3번째 수상자이며, OC 문인들 중에는 처음이다.

김수영 동문은 "나이 70에 등단했고 시를 쓴 지 10년 밖에 안 돼 모든 면에서 미숙한데 상을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라며 "81세에 시인으로서의 꿈을 이룬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영교 시인이 동생인 김수영 동문은 70살이었던 지난 2009년 미주문인협회 수필부

문 당선으로 등단했다. 작가는 2010년 한국산문 수필 신인상, 2013년 경희해외동포문학상 수필 부문 수상,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 통일예술제 해외동포 문학대상, 2018년 '제14회 대한민국통일예술제' 해외동포문학상 수필 부문 수상,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 통일예술제 해외동포 문학대상, 2018년 '제14회 대한민국통일예술제' 해외동포문학상 수필 부문 수상,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 통일예술제 해외동포문학상 수필 부문 수상 등이다. 그는 수필집 '늘 추억의 저편과 시집 '바람아, 구름아, 달아', '그리운 손편지'를 출간했다.

한편 민초 해외문학상 심사는 김봉근 박사(문학 평론가)가 심사 위원장, 정소성 불문학박사(소설가),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 심사위원을 각각 맡았다. 결선에 오른 작품은 시(31편), 수필(9편), 동화(4편) 등 총 44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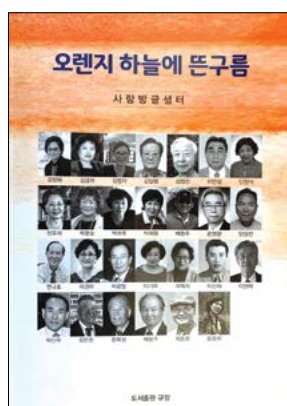
김수영 시인 약력

- 모교 사범대학 영어과 졸업 (피천득 주임 교수로부터 사사)
- 스킵트 박사 통역관으로 활동
- 세계보건기구 (WHO) 근무
- Four Square Life Bible College 졸업
- Southern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졸업
- 2009년 미주문인협회 수필 당선으로 등단
- 2010년 한국산문 수필 신인상 수상
- 2013년 경희해외동포문학상 수필 부문 수상
-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통일예술제 해외동포문학대상 수상
- 수필집 '늘 추억의 저편'
- 시집 '바람아, 구름아, 달아', '그리운 손편지'

최용완 동문 창간 '글샘터' 창립 10주년 축하 작품집 발간



최용완 (공대 57)



10주년 축하 작품집



참석회원들과 기념촬영 (맨뒤줄 우측 끝이 최용완 회장)

글샘터는 2008년에 최용완(공대 건축과 57학번)이 OC.한미가정상담소의 문화 활동으로 창립하였다. 우리말 글쓰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창작의 즐거움으로 10여년의 세월이 어느덧 지나갔다. 한국 문단의 거장, 홍승주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한국 문학의 혼을 글샘터회원 모든 분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시, 수필, 소설을 비롯한 우리 문학 창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키워주었다. 나이에 역행하며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무루익은 듯하다.국내외 문학에 60여 명의 등단 문인을 배출하였고 금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축하 작품집을 출판하였다. 지난 7월 10일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참석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모여 시, 수필, 소설, 생활수기, 논설을 쓰는 문학공부를 해왔다. 저명한 강사들을 초빙해 지도를 받고 바쁜 이민생활로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문학에 대한 꿈을 펼치고 있다. 회원들 중에는 이혼수속을 위해 상담소를 찾았다가 글샘터 회원이 된 후 글쓰기에 몰두해 행복한 가정을 다시 찾은 경우도 있다. 또 93세 된 한 노인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다가 회원이 된 후 삶의 희망을 다시 찾고 인생 경험담을 기록해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남편을 잃은 후 무덤 앞에서 시를 쓰기 시작해 시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어떤 회원은 글을 쓰기 시작하지 않았던 원수처럼 미웠던 남편과 헤어졌을 것이라고 회고하며 지금은 자식들과 함께 모두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이민생활을 통해서 겪는 한과 슬픔을 글로 승화시켜 자신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다시 찾는 모임이 되었다.

12세기까지 세계를 지배한 우리 선조의 지혜와 문화를 본받아 미국에 뿌리내리는 이민문학에 한국인의 일을 지켜 더욱 빛나는 우리말을 키워가려고 한다. 한국과 미국을 발판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학이며 민족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창작이기를 바란다.



가야금 연주자 이수진 (음대 96, 국악과)

박미경 동문과 이수진 동문은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각각 성악과와 음악교육의 박사과정을 마친 것이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었고, 현재는 MacPhail Center for Music의 강사진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이수진 동문은 맥패일 센터를 통해 한국 음악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맥패일 센터의 커넥션을 통해 미네소타의 초등학교에서 사물놀이를 가르치기도 하고 한국 음악을 소개하기도 하며 가야금 개인 레슨을 지도 하기도 한다. 이수진 동문의 이런 활동과 노력은 최근에 Minnesota Public Radio의 web platforms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소프라노 박미경 (음대 88, 성악과)

미네소타에 한국의 문화와 음악을 소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두 음악가 동문들은 내년을 목표로 두번째 앨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수진 동문은 이번 가을 9월과 10월에 가야금 렉터 콘서트를 열어 가야금의 옛 음악과 현대의 음악들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 중이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Korean Music and Poetry with Park and Lee: '사랑을 사자하니'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의 MacPhail Center for Music



【기사: 미네소타 동창회 송세진 회장】

지난 7월 20일(토요일)에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의 MacPhail Center for Music 에서 소프라노 박미경 (음대 88, 성악과) 동문과 가야금 연주자 이수진 (음대 96, 국악과) 동문의 음악회가 있었다. 언뜻 들으면 소프라노와 가야금이 같이 연주회를 한다는 것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황진이 등의 고전 시조를 현대인들이 듣기 쉬운 멜로디를 붙여 노래를 만들고 가야금으로 반주하는 두 동문의 새로운 음악들이 더운 여름 청량제처럼 신선했다.

박미경 동문과 이수진 동문은 지난해 McKnight Foundation이 지원하는 MacPhail Center for Music 의 Artist Development Grant Recipient 로 선정되어 소프라노와 가

야금이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음악들을 한국의 젊은 작곡가들에게 위촉하여 "사랑을 사자하니 (Yearning for Love)" 앨범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미네소타의 트윈시티와 로체스터지역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5음음계로 된 12현 가야금의 전통음악을 어렵고 생소하게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7음 음계로 된 25현 가야금으로 연주되는 이 새로운 음악을 즐긴다고 한다. 한국어로 노래하지만 영어로 된 해설본을 준비하여 미국인 관객들도 노래에 빠져들게 된다.

그런가하면, 국악이나 가야금을 고루하고 지루한 음악으로만 생각하던 미국내 한국인들도 현대인의 감성에 맞도록 작곡된 이 새로운 음악을 들으며 신기해 한다고 한다.

시카고 지역 동창회 골든 클럽 주관, 러시아 여행

성 이삭성당, 여름궁전의 분수공원, 예르미타주 박물관, 파블로프스크 궁전, 예카테리나 궁전, 피의 구세주 성당, 카잔 성당 등 관광

글: 김현석 (문리 70)

시카고지역 동창회는 골든클럽 주관으로 총 25명이 7박 8일 일정으로 7월 8일 시카고를 출발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2개 도시를 중심으로 러시아 여행을 마치고 15일 무사히 돌아왔다.

골든클럽 회원 대부분이 80세 전후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다 보니 여행을 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많았고 특히 해외여행 계획 수립은 쉽지않았다. 과거 13년동안 매년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새롭게 다녀올 곳이 마땅찮았고, 장시간 비행시간 고통, 장기간 여행의 피로감, 장소를 옮길때마다 짐을 싸는 고뇌 등, 이를 고려하여 10시간 이내의 비행시간, 10일, 3개도시 이내의 여행을 원칙으로 동문에 의한 동문을 위한 여행을 자체 수립하기로 하였고 결과물로 러시아 역사 문화 관광이 탄생하였다.

7/8일 시카고를 출발 헬싱키를 경유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였다. 우리에게 레닌 그라드라는 명칭이 익숙한 도시이기도 하다. 프트르 1세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 원래 습지였던 이 지역을 수많은 돌로 매꾸고 도시를 건설하였다. 돌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과 사람은 돌을 가져와야 하는칙령을 내려 선박은 30kg 이상을 10-30개, 사람은 15kg 이상의 돌을 3개씩 가져와야 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도시는 18세기 초반부터 러시아 최대의 무역항으로 공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1851년 러시아 최초의 철도가 부설되어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각종 혁명, 피의 일요일, 3월 혁명, 11월 혁명의 중심이 되었다. 또 세계 2차대전 당시 1941년 8월부터 29개월동안 독일군에 포위당한 상태로 40만 명이 아사되면서까지 지켜낸 영웅 도시이다.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도중 첫 눈에 띄는 것은 양파 모양 지붕에 색다른 십자가의 정교회 모습이었다. 양파 모양의 지붕을 꾸뽀이라고 하며 이는 신에 대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기도가 타오르는 촛불을 상징하며 이 촛불 위에 십자가처럼 십자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십자가 위아래에 작대기가 있는데 위의 작대기는 빌라도의 명명 즉 승리자 예수를 상징하고 아래 작대기는 고통과 희생을 상징한다(십자가에 달리면 극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발버둥을 치려고하기에 받침대를 놓았다) 특이한 것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았는데 이는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박힌 두 강도중 오른쪽 강도만이 예수를 인정하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성호긋는 것도 카톨릭과 다르다 세 손가락을 먼저 머리(성부)에서 배(성자)로 그른 다음 오른쪽(성자)에서 왼쪽(성령)의 순으로 긋는다. 정교회 종당의 소리를 듣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치는 종과는 달리 내타식 즉 종안의 쇠 방울로 쳐서 소리를 내어 울림이 강하다고 한다.



성 이삭 성당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

각 성당은 동일한 구조 즉 입구, 중간 내부 회중석, 지성소 3개로 구분되어 있고 신자가 경배하는 회중석에 의자가 없고 서서 예배를 들어야 한다고 한다. 예배 중 졸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장치를 하였나(?) 하여튼 예배가 길어도 쓰러지는 사람은 없다고하니 놀랍다. 더욱 놀랄 것은 1월 7일이 성탄절 러시아만의 특징이다.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연말 연초부터 휴무하고 덤으로 십여일을 쉬지 않을까(?)

호텔에 도착 여장을 풀고 성 이삭성당을 시작으로 여름궁전의 분수공원, 예르미타주 박물관(겨울궁전), 파블로프스크 궁전, 예카테리나 궁전, 피의 구세주 성당, 카잔 성당 등을 관광. 영국, 프랑스, 이태리의 궁전과 성당을 한 곳에 모아놓고 유럽 전체를 관광한 느낌. 한마디로 놀랍다. 아름답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은 이를 건설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겪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찡하다.

지면관계로 간단 간단히 주말간산 격으로 돌아보자.

성 이삭 성당:

이름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닌, 달마티아의 성 이사악이라는 정교회 성인이 이름이다. 100여 톤에 달하는 원형의 큰 돌이 72개나 둘러싸고 있고 알렉산드라 1세 때 프랑스 건축가 몽페랑이 40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내부는 3개의 제단이 있고 가장 숭배되는 생물은 성모마리아 성화의 복제품. 전 세계의 금을 다 모아 장식한 듯한 내부의 그 화려함은 글로 표현하기 힘들다. 팀 하나. 천장 돔 아래 바닥에 사진기를 놓고 둘러서서 사진을 찍으면 최고의 단체사진이 된다.

여름 궁전의 분수공원:

프트르 대제가 여름을 보내기 위해 만들었다고하여 여름 궁전이라고 한다. 러시아의 베르사이유 궁전이다. 해변에 세워진 거대한 궁전, 정원, 분수 그리고 조각상 한마디로 지상의 천국이라 할까. 분수는 지형의 높낮이



여름 궁전의 분수공원

로 수업을 이용 무동력으로 작동한다니 놀랍다. 분수의 숫자. 140개. 믿기 어렵다. 궁전 정면에서 바라보는 분수의 장관, 세계에서 가장 큰 분수대다. 특히 사자의 턱을 찢는 삼손이 백미이다.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러시아는 삼손, 스웨덴은 사자를 형상화 하였고한다. 러시아 대신 한국, 스웨덴 대신 일본을 대입시켜서 잠시나마 즐거움을 느끼면 어떨까 팀 둘. 분수대 옆의 벤치에 앉으면 절대로 앉힌다. 물세례 받게 된다. 일명 감추어진 분수대. 벤치에 앉는 순간 벤치 위로 물이 쏟아진다. 무더운 날은 권하고 싶기도한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만인이 보는가운데 샤워를 할 수 있으니. 옷을 입고 있어 다행(?)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필자가 당했다. 일행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

성 바실리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염서에서 본 러시아 상징인 성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성당은 한동안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였다. 내가 이곳에 왔다니. 그렇게 보고 싶은 보물이 내 앞에 있다니. 감사 기도하 절로 나왔다.



예르미타주 국립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세계 3대 박물관이다 제정 러시아 황제가 살았던 바로크 스타일의 겨울 궁전과 4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1,020개 방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

엘로, 피카소, 고갱, 고흐 등의 명화와 300만 점의 유물, 176개의 조각상, 박물관의 규모에 놀라고 전시 작품의 질에 감동받아 그 여운이 한 동안 진하게 남을 것 같다.

기타 궁전 성당을 뒤로하고 모스크바 행 고속 열차에 몸을 실었다. 635 킬로미터를 3시간 40분만에 돌파하는 초고속 열차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면 얼마나 고속인지 느낄 수 있다. 390 킬로미터, 2시간 40분. 모스크바 행 고속이 확실히 빠르다. 좌석도 넓고 또한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4일 동안 여행하느라 피곤하면 담소하다보니 어느덧 모스크바. 우리를 맞이하는 가이드 놀랄게도 러시아 아가씨.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러시아 미인이다.

드디어 모스크바 도착. 크렘린, 성 수테고지 성당, 붉은 광장, 바실리 성당, 근교의 삼위일체 수도원, 모스크바 국립대학 관광을 시작하였다. 러시아 최대의 도시이자 유럽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인 모스크바는 1922년 소련의 탄생과 함께 소련의 수도, 1991년 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수도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활기가 넘쳤고 특히 거리와 도시의 청결은 시카고와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좋았다. 쉬지않고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차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다.

중세 유럽 축성 예술의 압축인 크렘린은 성벽 총 길이가 2,235m, 성벽 높이가 5~19m, 벽 두께가 35~65m이고 1495년 이태리 건축가에 의해 건축되었다. 가장 높은 탑이 구세주 탑과 삼위일체 탑이다.

붉은 광장을 방문하였을 때 마침 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어 이를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서 좋았다. 러시아 혁명 시 혁명군이 흘린 피로 물든 광장이기에 붉은 광장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않고 슬라브어의 아름다움, 붉은 것, 따스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레닌의 묘 옆에 설치된 졸업식 사열대 옆에서 사진 한 컷. 흡사 푸틴이 된 기분을 만끽하고

성 바실리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염서에서 본 러시아 상징인 성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성당은 한동안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였다. 내가 이곳에 왔다니. 그렇게 보고 싶은 보물이 내 앞에 있다니. 감사 기도하 절로 나왔다.

모스크바에 왔는 데 지하철을 보지않고 갈 수는 없지않은가. 비록 일정에는 없었지만. 지하 100m 깊이로 내려가니 지하철 역이 아니고 예술 작품 전시장 같았다. 작은 성당이라고 할까. 뉴욕 지하철을 보면 러시아 사람들 기절할 것 같다.

자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을 향해 출발. 모스크바 국제 비즈니스 센터 내에 소재한 숙소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고 시카고로 귀향하였다. 호텔 식사, 가이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고 특히 감사한 것은 무사고, 한 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귀가 한 것이다.



복기대

1900년대 초반 도리이 류조를 대표로 하는 일본 고고학자들은 현재 중국 내몽고 적봉시 지역을 답사하면서 드넓은 평야 지역에 우뚝 솟아 오른 붉은 돌산 자락에서 고대 유적을 찾아 내었다. 당시 그들이 찾은 유적들은 집자리 유적들과 무덤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뒤 프랑스 학자, 중국 학자들이 계속 이곳을 답사하면서 유적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필자가 현장을 답사하면서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당시 일본학자들은 자기들이 일본인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인들이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당시 현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많은 고대 유적들은 조선인들의 유적으로 전해들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조사를 왔다가에 협조를 하였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적봉 홍산 전경

이런 많은 정보들이 쌓이면서 이 유적은 1930년대 당시 일본 고토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단에 의하여 의하여 발굴되었는데, 많은 무덤들을 확인하였고, 무덤 아닌 평지에서는 붉은 색으로 그림을 그린 질그릇을 많이 찾아내었다.



홍산문화 채도

당시로는 이들의 조사 내용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할 수 없어서 당시로는 '적봉1기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진한(秦·漢)시기-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1세기 이전의'의 문화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중국 학계에서는 연대가 매우 올라간 적어도 기원전 20세기보다도 빠른 신석기시대 문화로 인식하면서 '홍산문화'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 문화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한 것은 1970년대 적봉시 용우특기 주민에 의하여 발견된

홍산문화에 관하여

‘C자형 옥기가 발견된 옥기를 ‘용(龍)’이라고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 요녕성 객좌현에 위치한 동산취라는 제사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제사 유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부터이다.



C자형 옥기

이 두 사건은 중국 고대 문화의 상징을 찾고자 노력하였던 중국 학계에 커다란 희망과 결과를 안겨준 사건이었다(훗날 당시 용으로 고종된 기물은 용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 학자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그 후 1980년대 말 중국 요녕성 건평현에 자리한 우하량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이 유적에서 눈에 옥을 박은 여신상과 공 뼈가 발굴되었다. 이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이 문화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우하량에서 발견된 유물 위: 여신상, 아래: 중간 공 아래턱뼈, 오른쪽 공발 소조상)

그 후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많은 학자들도 이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 문화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문화 사람들은 산과 구릉을 잘 활용하여 거주지와 제사 유적, 즉 신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당시내 풍수의 이치를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문화에서는 많은 돌무덤들이 발견되었다. 이 무덤들 중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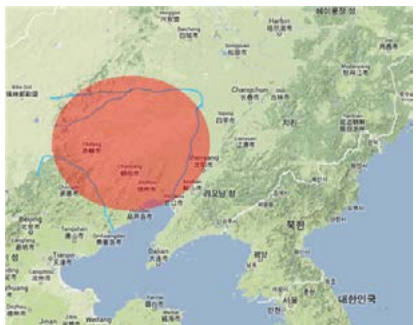
우하량 2호유적에서 발견된 돌무지 무덤

셋째, 이 문화의 유물 중에는 매우 다양한 옥기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산문화의 옥기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이 문화의 연대와 분포한 지역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문화의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6,500여년전부터 5,000년 무렵까지 이어진 문화이다. 문화가 자리한 지역은 현재 중국 요녕성 서부 지역과 내몽고 동남부 지역이다.



홍산문화 분포도

최근 학계에서는 이 문화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유적의 크기가 100 에이커 이상되지만 잘 정돈된 대형 유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이런 유적 부근에서 천문관측을 하던 유적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문화에서 다양한 인물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재질은 옥, 돌, 진흙 등 이다. 이들의 특징은 장식을 한 의상을 입었거나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결과부좌를 튼 자세까지 한 인물상이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산문화 분포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중앙 아시아인들의 모습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이 문화시대 이미 사회가 다양한 계층으로 형성되었음과 동시에 여러 지역과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의 문화들은 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 요소로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 문화의 후예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첫째, 이 문화는 옥을 포함한 돌들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른바 중원지역의 고대 문화에서는 거의 옥기를 포함한 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원 문화와는 매우 이질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둘째, 한민족 문화의 특징은 고대로부터 옥을 포함한 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친연성이 매우 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여기저기에 속하지 않는 북방 문화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지역적으로 보아 역시 어디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연속성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홍산문화 이후의 문화들과 비교하여 연구를 해보면 역시 옥을 포함한 돌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른바 북방문화라는 것은 한민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하여 교수

(복기대 교수님은 제28차 평의원의회의에 게스트로 참석하셨습니다. 동문은 아니지만 한국 고대사 연구로 잘 알려진 분으로 특별히 관련 원고를 부탁드려 위 글을 받아서 게재합니다.)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홍산문화에 발견된 인물상 들

첫째, 중국 학계에서는 이른바 중원지역의 양소 문화와 북방의 홍산 문화가 결합하여 오늘날 중국 문화의 조형이 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둘째, 한국 학계에서는 출토되는 유물들의 특징을 - 돌을 주로 사용하는 장례법, 옥기- 볼 때 한국의 고대 문화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이와는 달리 여기저기에 속하지 않는 북방 지역의 고유한 문화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들은 확인되는 유적이나 유물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리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지역과 지역 간에는 늘 교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문화 DNA가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다.

첫째, 이 문화는 옥을 포함한 돌들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른바 중원지역의 고대 문화에서는 거의 옥기를 포함한 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원 문화와는 매우 이질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둘째, 한민족 문화의 특징은 고대로부터 옥을 포함한 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친연성이 매우 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여기저기에 속하지 않는 북방 문화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지역적으로 보아 역시 어디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연속성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홍산문화 이후의 문화들과 비교하여 연구를 해보면 역시 옥을 포함한 돌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른바 북방문화라는 것은 한민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하여 교수

(복기대 교수님은 제28차 평의원의회의에 게스트로 참석하셨습니다. 동문은 아니지만 한국 고대사 연구로 잘 알려진 분으로 특별히 관련 원고를 부탁드려 위 글을 받아서 게재합니다.)



백 순 (법대 58)는설위원

저성장 세계경제 전망과 경제 흐름

2009년대 경제 침체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분위기는 2015년 이후 몇 년 동안 침체(Recession: GDP 성장 2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비관과 낙관(Gloom and Optimism)사이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다. 즉 2015년 세계 경제가 비관을 일마간 경험하였다가 2017년 크게 회복이 되었고 최근 2019년 다시 세계 경제의 침울한 분위기가 예측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3가지의 경제 지표가 이를 반영해 주고 있다.

첫째 세계 경제 생산이 2015년 저조하였다가 2017년에 회복되었고 최근 2019년 다시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세계 경제의 침울한 분위기를 예측해 주고 있다.

IMF의 최근 예측에 의하면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 3.3%일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선진 경제의 성장률이 전년보다 0.4% 낮은 1.8%이고, 2018년 개발 도상 경제의 성장률이 전년보다 0.2% 낮은 4.4%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선진 경제 가운데 미국의 GDP 성장은 3.2%로 적절하지만 다른 선진 경제들과 중국 6.4%와 인도 5.8%를 제외한 발전 도상 경제들도 매우 낮은 GDP 성장율을 들어내고 있다. 일본 0.9%, 유럽 연합 1.2%, 브라질 0.5%, 러시아 0.5% 등의 GDP 성장 지표가 이를 증명해 준다.

둘째 세계 무역 성장도 2015년 슬럼프에 빠졌다가 2017년 회복되었고 최근 다시 크게 떨어 지는 현상이 세계 경제의 침울한 분위기를 경고해 주고 있다.

WTO에 의하면 세계 무역 성장이 2019년에 2.6%로 저조할 것이고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1.1%나 떨어진 성장률임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유엔 무역 개발회의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세계 해외 직접 투자가 전년에 비해 19%나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GDP 대비 세계 교역 경상수지가 미국 -2.4%, 영국 -4.1%, 브라질 -1.0%, 인도 -1.8% 등으로 적자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셋째 증권 시장의 흐름도 2015년 크게 떨어졌다가 2017년 회복되고 최근 다시 동요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세계경제의 침울한 분위기로 진입하는 경고와 아닝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전주대비 증권 시장 지표는 세계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US S&P 500 -0.4%, US NAScomp -1.0%, EURO STOXX 50 -0.3%, Nikkei 225 -1.3%, All Ord -0.2%, KOSPI -0.1% 등 중

권 시장 지표의 변동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이렇듯 세계 경제가 침체는 아니더라도 2015년에 이어 최근 2019년에 침울한 (Gloom) 분위기를 (1) 세계 경제 생산(Global GDP)의 저성장률과 (2) 세계 무역의 저성장률 그리고 (3) 세계 증권 시장의 변동 등을 통하여 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 경제의 침울한 분위기가 좀 더 비관적인 경제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이 요구되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경제를 침울(Gloom)이든 침체(Recession)이든 회복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나누어 화폐 정책과 재정 정책(Monetary Policy and Fiscal Policy) 등 2대 경제 정책이 있다. 화폐 정책은 이자율을 낮추든지 양적 완화 통하여 시장에 통화를 증대 시킴으로 경제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다. 재정 정책은 인프라 투자와 세금 감면 등을 통하여 국민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정부가 주관하는 경제 정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2019년 세계 경제의 침울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 경제나 개발도상 경제가 택할 수 있는 화폐 및 재정 경제 정책은 그 활용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논리이다. 왜냐하면 2009년 대경제 침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연방 준비 은행과 유럽 중앙 은행이 이미 0에 가까운 이자율로 낮추었고 거대한 양적 완화를 수행하였으며,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등의 정부들이 스티물러스의 재정 정책을 시행하여 거의 GDP에 맞먹는 국가부채를 쌓아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런 경제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한다면 지금의 침울한 세계 경제가 더 비관적인 침체의 세계 경제로 빠져들어 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제 정책이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다.

하나, 미국의 연방 준비 은행이나 유망중앙 은행은 올리고자 예정한 이자율을 지연시키거나 연방준비은행은 현 이자율이 2.4%임으로 0.7%정도 낮추는 정책이다. 그리고 연방 준비은행이나 유럽 중앙 은행은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을 중지하거나 유럽 중앙은행은 아직도 여유가 있음으로 양적 완화를 얼마 활용하는 정책이다.

둘, 미국이나 유럽 연합이나 중국 등 정부는 국가 부채에 그리 커다란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스티물러스 재정 정책을 수행하여 침울한 세계 경제의 분위기를 경제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단행하는 것이다.



정유석 (의대 58)

음악과 정신건강

“너 귀한 예술이여/ 인생의 황량한 폭풍이 소용돌이치는/수많은 우울한 시간 속에서/ 너는 내 마음 속에 온화한 사랑과 즐거움이 솟게 만들었지/너는 나를 더 나은 세계로/ 더욱 행복한 세계로 인도해 주었지.” 슈베르트의 가곡 ‘음악에게’(An die Musik)에 나오는 일절 가사다. 연가곡 ‘백조의 노래’ 중 하나다. 친구면서 후원자였던 프란츠 폰 쇼바의 시를 사용해 만든 작품으로 음악이 인간에게 끼치는 지대한 공헌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노래다.

음악은 인류 문명에 항상 존재 해 왔으며 소통수단으로는 언어보다도 더 자주 사용되었다. 약 5만 년 전이었을가 어머니들은 칭얼거리는 아기들을 재우기 위해 자장가를 불렀을 터이고 이 음악에 맞춰 아기들의 심장은 골고루 뛰었고 호흡이 안정되었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은 아기들은 평화롭게 잠에 들기 시작했으리라. 실제로 간난 아기들은 노래의 멜로디보다는 고저강약의 음향에 따라 보호자인 어머니의 존재를 인식한다고 한다.

음악은 우주에서 치유능력을 지녀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치유의 효과로 음악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은 구약성서에도 기술되어 있다. 사울 왕의 우울증을 다녔은 수고를 연주하여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화에서 사마들은 종교 의식은 주관했을 뿐만이 아니라 치료사로서의 역할도 맡아왔다. 그 방법으로 약초와 주술의 사용 말고도 음악으로 약초와 주술의 사용 말고도 음악을 이용했다. 그 원래 소재는 자신들의 꿈에 기인했다고 했는데 음악의 요신인 멜로디, 리듬, 하모니가 골고루 이용되었다. 물론 ‘위약효과(Placebo Effect)도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음악이 건강에 도움이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주장을 했다. 음악은 각 문화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었지만 인간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서로 영향을 주었다. 다윈은 적자생존 법칙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원시인들이 사냥에 성공하면 언어 대신 사람들이 모여 앉아 노래를 하며 축하했는데 여기에 춤이 요소가 가미되었다. 중세에는 음유시인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연주했다. 약 5백 년 전부터는 음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가정이나 리사이틀 홀, 또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 음악가들의 연주를 감상하는 관습이 생겼다. 산업혁명 이후 음악은 사회 교류의 중요한 기능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음악이 균형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나치스 독일은 재즈 같은 음악을 퇴폐음악이라고 규정해서 금지했고 문화혁명 당시 중국도 같은 이유로 현대음악이나 대중음악을 배척했다.

군대마다 군악대가 있고 이들은 주로 행진곡을 연주한다. 원래는 절도가 없는 젊은 이들이 힘차게 전장으로 향하게 만든 곡들이다. 그러니까 기력이 없을 때에는 수차 Sousa의 Stars and Stripes Forever, Sepmper Fideles, Washington Post March 등이 기력은 돋아줄 것이다. 미국 행진곡에 식상했다면 주페 Suppe의 경기병 서곡 The Light Cavalry ov.이나 오펜바흐의

에 LP나 CD가 나타나 굳이 연주회장에 가지 않고 거실에 앉아서도 연주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현대에는 MP3나 iPod등을 이용해, 요즘은 YouTube를 이용해 개인이 원하는 음악을 필요한 때 아무데서나 들을 수 있다. 연주장이 우리들 손바닥으로 옮겨온 것이다. 모차르트 음악은 지적 기능을 훈련시킨다고 해서 (소위 모차르트 효과) 유행을 크게 탄 적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음악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광범위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음악은 언어보다도 더 감성, 의욕, 보상을 관장하는 두뇌의 원초적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친다. 기악으로 연주되는 음악에 가사가 첨부되면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뇌의 중요부위인 두뇌 피질까지 기능을 한다. 거기에 언어 충추가 있기 때문이다. 원초적 두뇌인 변연계 (Limbic System) 말고도 전에는 그 음악적 기능을 의심하지 않았던 주로 운동을 관장하는 소뇌까지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왜 음악이 울동을 유도하는지 설명이 가능하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음악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 발장단을 맞추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음악은 두뇌 양측의 기능을 모두 요구하는 것 같다. 음악가들은 좌우두뇌를 연결하는 뇌량(腦梁, Corpus callosum)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인간의 두뇌는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발달되어 있다. 씨니어 센터나 특수아동 교육에서 음악과 울동을 강조하는 이유의 이론적 근거가 여기에 있다.

고전 음악이 우울증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도 있다. 우울증 환들에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번과 5번을 일주일에 두 번 들려주니 우울증 지수가 낮아졌다고 한다. 마음이 답답한 경우 불발 하늘을 높이 치고 나르는 종달새 음악을 권하고 싶다. 하이든 Haydn의 현악 사중주곡 The Lark, 글린카 Glinka의 피아노 소품 The Lark, 본 윌리엄스 Vaughn Williams의 The Lark Ascending, 비발디 Vivaldi의 사계 중 봄 Spring을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기분이 울퉁한 날에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 4악장이 좋다. 모차르트의 Exultante jubilate도 좋는데 그 마지막 부분의 Alelujah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Hallelujah에 못지않게 유명한 곡이다. 헨델의 할렐루야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준다면 모차르트의 것은 현란하게 아름답다.

군대마다 군악대가 있고 이들은 주로 행진곡을 연주한다. 원래는 절도가 없는 젊은 이들이 힘차게 전장으로 향하게 만든 곡들이다. 그러니까 기력이 없을 때에는 수차 Sousa의 Stars and Stripes Forever, Sepmper Fideles, Washington Post March 등이 기력은 돋아줄 것이다. 미국 행진곡에 식상했다면 주페 Suppe의 경기병 서곡 The Light Cavalry ov.이나 오펜바흐의



연봉원 (문리 61)

한글과 문화대국 (文化大國)

세종대왕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을 1443년 음력 9월 10일에 반포하셨다. 그동안 정확한 낱자를 모르고 있고 이설(異說)만 난무하다가 다행히도 1940년 전형필 선생이 “훈민정음해례본 (간송 본)”을 입수하여 정확한 반포 일을 알게 되었으며,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계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공표하였다. 세계에서 자기 문자를 국가 기념일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세종대왕 덕에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 unique) 한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고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 할 수 있는 문자(文字)를 가진 민족이 됐다. 중국에 가까이 있는 민족이 자기 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거의 없으며, 있다해도 한문을 응용하거나 단순화한 문자에 불과 하지만 (일본, 겨란 등) 우리만 독자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현재 쓰고 있는 세계 각국 문자 중에 우리나라만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민족이라고 한다.

- 세종대왕과 “나랏말싸미”란 영화

이 글을 쓰게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상영된 “나랏말싸미”란 영화에서 훈민정음은 어학에 능통한 “신미”란 중이 불교 경전이 쓰여진 바라문을 응용하여 문자를 만들었고 세종대왕은 그저 조역에 불과하다는 엉터리 이야기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쓰게되었다.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 하고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는 불교 흔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차라리 유교적 소양이 충실한 학자가 만들었다는 증거 만 수도 록하다. 예를 들면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하여 글자 하나를 이루고, 모음은 천, 지, 인(天, 地, 人)에서 따왔다는 사실이다. 창제 원리를 해설한 해례본에도 “전하가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집현전 학자 정인지(鄭麟趾)도 서문에 “전하창제”라고 쓰고 있다.

혹자는 5개국어에 능통했다는 집현전 학자 신숙주(申叔舟)가 주동이 되어서 당시 국립 Academy였던 집현전 학자들이 명(明)나라 언어 학자였던 황찬이 마침 산둥성(山東省)에 귀양 와 있던 것을 기회로, 그의 지도를 받아 집단적으로 만들었다는 가설도 발표하였으나, 신숙주가 황찬을 여러번 찾아 간 것은 한자음을 바로 잡기 위한 질문을 하러 간 것이다. 그 이유는 신숙주가 산둥성으로 황

제를슈타인 대공비 서곡 The Grand Duchess of Gerolstein ov. 등을 시도해도 좋다. 실연의 아픔이 사무칠 때 스비리도브 Sviridov의 로맨스 Romance는 그 슬픔을 배가시킨다. 아련한 첫사랑의 그림자가 아른거릴 때 비발디 Vivaldi의 A Rain of Tear는 마치 빗방울같이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게 할 것이다.

친지의 사별로 울적할 때에는 Requiem 진

찬을 찾아 간 것은 1447년 1월로 훈민정음 반포 후 3년 반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3년간 집현전 학자들은 해례본을 만드는데 동원됐다. 영화에서는 승려인 “신미”가 다 하고 세종대왕은 조력자 쯤으로 묘사 되었는데, 이것은 영화가 아무리 창작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인

“한 글자에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야 완전한 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글자라는 사상도 엿볼 수 있으나,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10개의 모음과 18개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에서 따왔다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학적인 문자이고, 모음은 천, 지, 인(天, 地, 人)의 셋을 모아서 썼으니 어디에 이것보다 더 철학적인 문자가 있겠는가...?”

역사 왜곡일 뿐이다. 세종대왕은 어려서부터 책을 손에서 떼어 놓을적이 없었고 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학문에 열심이었고, 최만리 등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학자들이 세종대왕과 토론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종의 학문 경지는 높았던 것이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후 여러 불교 경전이 번역되고, 정철(鄭澈)의 가사(歌詞), 윤선도, 신사임당 등이 우리나라 문학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 한글의 독창성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혼자 창제하시고 단지 집현전 학자들에게 3년간 연습을 시킨 후 반포하셨다고 생각한다. 세종대왕의 천재성은 당시에 알려졌던 유일한 문자인 한문에

흔곡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Faure의 Requiem은 그의 다른 곡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율이 무척 아름답다. 보통 진혼곡들은 누가 죽었을 때 작곡하기 쉬운데 포레의 경우 그런 심적 부담감 없이 작곡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하다.

브람스 Brahms의 독일진혼곡 Deutsche Requiem의 경우 원래 진혼곡들은 장례미사곡이어서 가사가 라틴어로 정해져 있

서 탈피하여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음절 문자를 만든 점이라 하겠다. 물론 한글자에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야 완전한 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글자라는 사상도 엿볼 수 있으나,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10개의 모음과 18개의 자음은 (임진왜란 이후 자음 3과 모음 하나가 많쓰이게 됨) 발음 기관의 모양에서 따왔다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학적인 문자이고, 모음은 천, 지, 인(天, 地, 人)의 셋을 모아서 썼으니 어디에 이것 보다 더 철학적인 문자가 있겠는가? 또한 그 유일 무이한 독창성은 기본 자음에다 획을 하나씩 더해 가며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임을 알게 한 것이다. 예를 들면,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 치아에서 나오는 소리
- ㅓ, ㅕ, ㅗ, ㅛ, ㅜ, ㅠ - 혀에서 나오는 소리
- ㅁ, ㅂ, ㅃ -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 어느나라 알파벳 보다도 융통성(flexible)이 있다는데 있다고 본다. 영어로 쓰는 로마자만 해도 인쇄체, 필기체가 있고, 거기에 소문자, 대문자 등 4가지 이상을 배워야 하며, 러시아어도 마찬가지로, 일본어도, 히라가나, 가타가나 2가지에 글을 제대로 쓸려면 한문을 70 퍼센트 이상 섞어서, 음독(音讀), 훈독(訓讀) 등 여러 복잡한 규칙을 외워야만 하며, 한문도 초서, 전서, 예서 등이 있고 중국에서는 단자라고 해서 기왕의 한문을 단순화한 글을 4500자나 만들어서, 중국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도 고전을 읽거나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발간한 한문 책을 읽으려면 한문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한글은 단 한가지 글이면서 좌우, 상하 어떻게 쓰던지 상관 없는 글이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글을 완성하신 덕택이며, 한문, 일본어는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직접 쓰지 못하고 변형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하니, 세종대왕은 마치 디지털 시대를 예견하시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참에 이어령 교수가 “20 세기는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이 일본이 유리 했지만 21 세기는 디지털 세계이므로 우리 한민족이 단연코 유리 하다”는 말씀이 생각난다.

- 우리는 문화대국(文化大國)을 지향해야 한다

또 모음도 ㅏ는 해가 오른쪽인 동쪽에서 뜬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음이 밝아 지고, ㅓ는 해가 머리위 정오에 온 것을 나타내는 소리며, 반대로 ㅑ는 해가 서산에 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발음도 어두어 지는 것을 나타내니 세계 어느 민족의 문자가 우리 것과 같이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심오한 문자가 있겠는가?

- 주시경 선생과 한글

한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고, 한글은 약 백년전 주시경 선생이 훈민정음을 한글로 명칭을 바꾸시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문법과 띄어쓰기, 글자체의 근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세종대왕의 업적이 훼손되는

며 일정한 예배 형식에 매어 있지만 브람스는 독일어 성경에서 마음 맞는 구절을 인용해서 작곡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나 이별의 고통을 초월하려는 인상을 준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LA 필하모닉의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이끌었던 시몬 볼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실험도 주목할 만 하다.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청소년 5만 명에게 고전 악기를 연주하게 하여 관현

것은 물론 아니다. 한글은 훈민정음을 현대식으로 약간 손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글”은 “큰 글”이란 의미이었으나 그 이상으로 밝고 고귀한 글이란 의미도 되겠다. 주시경 선생의 제자이신 최현배, 김윤경 선생 같은 분들이 남쪽에서 한글 보급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반면 북쪽에서는 부수상을 지낸 김두봉 같은 주시경 선생의 제자가 나름대로 한글 발전에 많은 공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방 뒤후 최현배 선생은 문교부 편수관으로 계시면서 국어 교과서 편찬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 어느나라 알파벳 보다도 융통성(flexible)이 있다는데 있다고 본다. 영어로 쓰는 로마자만 해도 인쇄체, 필기체가 있고, 거기에 소문자, 대문자 등 4가지 이상을 배워야 하며, 러시아어도 마찬가지로, 일본어도, 히라가나, 가타가나 2가지에 글을 제대로 쓸려면 한문을 70 퍼센트 이상 섞어서, 음독(音讀), 훈독(訓讀) 등 여러 복잡한 규칙을 외워야만 하며, 한문도 초서, 전서, 예서 등이 있고 중국에서는 단자라고 해서 기왕의 한문을 단순화한 글을 4500자나 만들어서, 중국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도 고전을 읽거나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발간한 한문 책을 읽으려면 한문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한글은 단 한가지 글이면서 좌우, 상하 어떻게 쓰던지 상관 없는 글이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글을 완성하신 덕택이며, 한문, 일본어는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직접 쓰지 못하고 변형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하니, 세종대왕은 마치 디지털 시대를 예견하시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참에 이어령 교수가 “20 세기는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이 일본이 유리 했지만 21 세기는 디지털 세계이므로 우리 한민족이 단연코 유리 하다”는 말씀이 생각난다.

- 우리는 문화대국(文化大國)을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 지리적(地理的)으로 대국을 운운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바야흐로 문화를 대국의 척도로 삼는 시대가 도래했다. 프랑스가 비록 인구나 국토는 크지 않을 지언정 문화적으로는 세계 어느 대국보다 영향이 큰 문화대국(文化大國)임을 우리는 안다. 김구(金九) 선생도 “백범일지(凡日誌)에서 우리의 소원은 문화대국이 되는거라고 말씀하셨다. 유구한 반 만년 역사와 세계에서 유일 무이한(unique)한 문자를 가진 우리 한 민족은 음악, 영화 등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韓流)를 등에 업고 비록 우리의 조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문화 대국(文化大國)으로 발돋움 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변호사

주인공이 기숙사 선배에게 들은 한 마디. 성격이 전부라고. 아무리 하버드 법대라도 성적 나쁘면 취직 안 된다고. 취직 때 하버드 법대 사인을 목에 댈 수도 없다며. 정말 미국 법대의 성적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은 변호사 시험이 선발 시험이 아닌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웬만한 법대생은 다 시험을 통과한다고 본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자격 시험이라도 합격률이 50% 정도 밖에 안되니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법률 회사에 취직이 되려면 좋은 법대, 좋은 성적이 중요하다. 얼마나 성적을 중요시 하나 하면 웬만한 법대에서는 시험 단판지에 본인 이름을 못 쓰게 하고 대신 학사 행정실만 아는 고위 변호를 각 학생에게 부여하고 이 번호만 단판지에 쓰게 한다 (최소한 80년대 필자가 다니던 법대에서는 그랬다). 채



박준창 (인문대 79)

<영화 이야기> The Paper Chase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들)

주인공 제임스 하트 (James T. Hart [Timothy Bottoms 분])는 미네소타 출신으로 하버드 법과 대학원 입학생 (이제는 한국에도 서울대를 비롯하여 학부에 법대가 없는 학교가 많다). 1학년 강의 첫날 킹스필드 (Kingsfield) 교수의 계약법 강의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교수 악명이 높다. 얼마나 학생들을 쥐어 짜고 괴롭히는지 학생 여럿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킹스필드 교수의 경멸적인 수업 태도에 지친 주인공은 반항을 시도하는데. 호명이 되었음에도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주인공을 자리에서 내려 오라고 한 다음 킹스필드 교수는 10전 짜리 동전 하나를 준다. 그 동전으로 나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라고. “내가 과연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 우리 교수는 나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



채정 중인 킹스필드 교수. 이런 학생도 있을 것 같아 코믹하게 그려 준 것임. 킹스필드 교수 역을 연기한 John Houseman은 이 영화 하나로 일약 아카데미 조연 남우상을 거머 쥐고 뒤이어 제작된 TV 시리즈에서도 같은 역을 계속했다. (그림: 박준창)

라고. 주인공은 “개새끼”라고 말하고 강의실을 나가려는데. 나가는 주인공을 둘러 세운 교수의 응수가 역시 킹스필드답다. “오늘 학생이 말한 것 가운데 가장 지적인 말이었다”고.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와 앉으란다.

주인공이 기숙사 선배에게 들은 한 마디. 성격이 전부라고. 아무리 하버드 법대라도 성적 나쁘면 취직 안 된다고. 취직 때 하버드 법대 사인을 목에 댈 수도 없다며. 정말 미국 법대의 성적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은 변호사 시험이 선발 시험이 아닌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웬만한 법대생은 다 시험을 통과한다고 본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자격 시험이라도 합격률이 50% 정도 밖에 안되니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법률 회사에 취직이 되려면 좋은 법대, 좋은 성적이 중요하다. 얼마나 성적을 중요시 하나 하면 웬만한 법대에서는 시험 단판지에 본인 이름을 못 쓰게 하고 대신 학사 행정실만 아는 고위 변호를 각 학생에게 부여하고 이 번호만 단판지에 쓰게 한다 (최소한 80년대 필자가 다니던 법대에서는 그랬다). 채

점하는 교수는 이 학생이 누구인지 모른다. 수업 시간에 아무리 참여가 활발하고 똑똑한 대답을 했다고 해도 교수가 점수를 더 줄 수가 없다. 수업 시간에 교수에게 질타는 받지만 수업 불참여도, 결석도 아무 상관없다. 그냥 시험만 잘 치면 끝이다. 미국에서 전혀 미국같지 않은 교육 방식이다.

John Jay Osborn, Jr의 베스트 셀링 소설이 원전인데 작가 자신이 하버드 법대 출신이다. 법대 3학년때 썼다고 한다. 소설가, 변호사이면서 법대 교수. 영화도 좋았고 관객들의 반응도 좋아 TV 시리즈로 또 만들어졌다.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 지는데 똑똑한 하버드 법대생들의 자존심과 고집들이 서로 부딪힌다. 미래의 대법원장, 월 가를 움직이는 인물들,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나올 법대 중의 법대 하버드 법대이니 그럴 만 하다. 한국의 서울 법대생들이 서울 법대를 가리켜 그냥 “법대”라고 하듯 하버드 법대도 자기네들끼리 그냥 “The Law School”이다.



채정 중인 킹스필드 교수. 이런 학생도 있을 것 같아 코믹하게 그려 준 것임. 킹스필드 교수 역을 연기한 John Houseman은 이 영화 하나로 일약 아카데미 조연 남우상을 거머 쥐고 뒤이어 제작된 TV 시리즈에서도 같은 역을 계속했다. (그림: 박준창)

어쨌든 주인공은 서서히 킹스필드 교수에게 사로 잡히게 되고 그를 연구하고 그의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똑똑한 답으로 그의 존재를 킹스필드 교수에게 각인시킨다. 그리고 잘 생긴 여자 친구 수전 피일즈 (Susan Fields [Lindsay Wagner 분])가 생기는데 그녀가 바로 킹스필드 교수의 딸이다 (Lindsay Wagner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the bionic woman 소머즈로 유명한 배우). 주인공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킹스필드 교수 정취 파티에서야 알게 된다. 수전이 별거하고 있는 유부녀인 것도. 남편 역시 킹스필드 교수의 학생이었던 것도.

그러나 법대 공부가 쉽지는 않다. 기말 시험이 가까이 오면서 모든 학생들이 시험과 공부의 중압감때문에 미쳐 가는데...

그러나 법대 공부가 쉽지는 않다. 기말 시험이 가까이 오면서 모든 학생들이 시험과 공부의 중압감때문에 미쳐 가는데...



한정민 (농대 87)

수술 없이 뇌를 바꾸다

어떤 이들은 ‘의사도 아닌 심리상담사가 뇌 이야기를?’라고 의아해하겠지만,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과학의 발달이 밝혀주는 연구 결과들은 상담사인 내게도 늘 흥미로우며 배울꺼리다. 사람의 뇌의 구조와 작동 방식, 그리고 세레토닌, 도파민이나 엔돌핀 같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어도, 눈에 콩깍지가 씌운 커플, 외계인처럼 낯설어진 사춘기 자녀, 또

어떤 이들은 ‘의사도 아닌 심리상담사가 뇌 이야기를?’라고 의아해하겠지만,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과학의 발달이 밝혀주는 연구 결과들은 상담사인 내게도 늘 흥미로우며 배울꺼리다. 사람의 뇌의 구조와 작동 방식, 그리고 세레토닌, 도파민이나 엔돌핀 같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어도, 눈에 콩깍지가 씌운 커플, 외계인처럼 낯설어진 사춘기 자녀, 또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fMRI 같은 사진을 통해 실제로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전의 상담사들은 분노 문제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혼자 마음껏 화낼 장소를 찾아서 분노를 분출하라’ 했지만,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fMRI 사

“불평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그 부분 뉴런의 연결이 강화되어 더욱 부정적인 뇌가 되는 반면,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거리를 찾으면 그 쪽 뉴런의 연결이 세지며 더 긍정적인 뇌로 구조가 바뀌게 된다.”

진을 찍어 보니 분노를 계속 폭발하면 그 쪽 부분의 뇌의 신경세포(뉴런)가 더 활성화 되고 연결이 강해져서, 점점 분노를 빨리 느끼는 ‘분노 중독’이 됨을 발견했다. 대신 평소애 명상이나 마인풀니스 훈련을 통해,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의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심호흡을 통해 이성의 뇌(전두엽)가 작동되길 훈련시킨다.

과거에는 뇌가 성장기 동안 만들어져 20살 무렵에 완성되고 더 이상 새 뉴런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연구와 뇌사진들을 통해 우리 뇌가 성인인 된 이후에도, 경험의 반응에 따라 새로운 뉴런이 계속 생성되고 연결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소멸됨으로써 뇌 구조가 계속 변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뇌의 가소성 (neuroplasticity)’이라 한다. 만약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좌뇌를 제거할 경우, 남은 우뇌가 점차 좌뇌 역할을 담당하는 신경망을 생성하면서, 전체 뇌가 하던 기능을 한쪽 뇌가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뇌의 가소성 때문이다.

새로운 경험, 감정, 생각, 기억 등에 맞닥뜨렸을 때 두뇌는 신경 경로를 설정한다. 뉴런은 신경 경로 안의 한 지점(시냅스)에서 만나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하며 ‘fire

together, wire together’ 한다. 즉 새로운 지식이나 반복 훈련을 할 때마다, 시냅스의 소통과 전송은 연관된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강화된다. 나이가 들면서 속도는 느려지지만 눈을 감는 순간까지 뇌는 새로운 경험에 반응하며 firing과 wiring을 통해 새로운 뇌지도를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뇌지도를 그리는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신경과학자인 타라 스와트 (Tara Swart) 박사는 ‘활동의 복잡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새로운 뇌지도를 얻으려면 4개월 반, 144일 또는 심지어 3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니 마음에 ‘할만하네라’ 희망이 생긴다.

불평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그 부분 뉴런의 결속이 강화되어 더욱 부

“불평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그 부분 뉴런의 연결이 강화되어 더욱 부정적인 뇌가 되는 반면,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거리를 찾으면 그 쪽 뉴런의 연결이 세지며 더 긍정적인 뇌로 구조가 바뀌게 된다.”

적인 뇌가 되는 반면,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거리를 찾으면 그 쪽 뉴런의 연결이 세지며 더 긍정적인 뇌로 구조가 바뀌게 된다. 한 지인이 “매일 감사일기(gratitude journal)를 쓰고 친구와 나누다 보니 몇개월 후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나이, 성별, 지식과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모두 ‘뇌의 가소성’이란 마법같은 능력이 지녔던 사실을 힘입던 어린 시절의 상처나 뜻하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해 힘들어하는 독자들과 내담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내가 바꿀 수 있는 뇌에 어떤 생각을 심고 행동으로 옮기느냐는 나의 선택이고 힘이다. 이 마법같은 능력은 조물주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자, 이제 당신의 뇌에 어떤 생각을 심고, 어떠한 길을 내고 뒹굴 것인지는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4monicalee@gmail.com
심리상담사



장윤정 (법대 84)

미국에 살면서, 특히,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 살면서 누리는 혜택 중의 하나는 공공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를 내집에 편안히 앉아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LA 시립도서관(공식명칭: Los Angeles Public Library)의 각종 자료는 방대한 뿐 아니라 끊임없이 신규 데이터가 보충되기 때문에 꼭 갖고 싶은 책이나 DVD가 아니면 새로 구입할 필요를 전혀 못느끼거나 산다. 미국 경계를 부양하기 위해 소핑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일반적 분위기에 역행해서 조금 미안하지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주로 지탱되는 공공도서관을 보다 잘 이용하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한미의 도서관 비교를 잠시 하자면, 요새는 한국도 도서관에 자료가 조금은 비치되어 있는 모양이다. 동생이 사는 과천의 시립도서관을 몇년 전 한국 방문 중에 둘러보았을 때 실내가 밝고 넓적하면서 쾌적했고, 서가도 뽁뽁했으며,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1980년대에 중고대학생 시절을 보낸 나로서는 상당히 낯선 풍경이었다. 중 3대인가 처음으로 남산 도서관을 가보았었다. 다른 아이들이 정독 도서관이나 남산 도서관에 가서 주말에도 공부한다고 자랑을 하길래 호기심이 발동했다.

집이 서울 북쪽의 성북구 능동이었던 관계로 그 두 도서관이 너무 멀어서 미처 가볼 엄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하도 자랑들을 하니 구경을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그 짧지 않은 남산길을 꾸역꾸역 올라가 도착한 남산도서관은 실망스럽게도 독서실에 다름 없었다. 또래의 교복 입은 중고생들이 자리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인채 교과서와 참고서를 들여다 보고들 있었다. 나 역시 자료실이나 서가를 둘러봐야겠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들지 않았다. 남산도서관 입구에 안내데스크가 있었던 기억도 없다. 한마디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민들이 찾아오기를 유도하는 공공도서관이 아니었다. 내가 너무 모르기도 했지만 가르쳐 주려는 노력도 없었던 도서관이라는 인상만 남아 있다. 결국 어찌어찌 자리를 하나 구해 갖고은 참고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한두 시간 지나다 보니, 왜 굳이 이 멀리까지 버스타고 와서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앉았나 싶어 한심했다. 집이나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서 교실에 앉아 공부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 그 후로 성인이 되어 미국으로 올 때까지 공공도서관을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었다. 아니, 이용할 필요조차 못느꼈었다. 서울대 도서관에도 자료가 많았겠지만 여러가지 핑계로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아마도, 석사과정을 한국에서 했다면 도서관 이용법을 터득하여 제목으로만 알던 고급의 장서들을 만날 수 있었으리라

영화 다시 보기의 즐거움

상상해 본다.

한국의 현재 공립도서관이 내가 언젠가 발견할 지식의 보고라만 미국, 특히 LA시립도서관은 20년이 훌쩍 넘은 미국에서의 내 삶에 오아시스이다.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의 서평을 읽고 관심이 가는 제목을 찾아보면 열의 야흥, 아니 백 중 구십구는 이미 도서관이 소장 중이거나 조만간 구입할 명단에 올라있다. 특히, 어려서부터 영화광이던 나에게 LA도서관의 DVD(연속극, 미니시리즈 포함) 목록은 마치 천상의 선물과 같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전래동화 속의 도깨비 방망이나 마찬가지로.

물론, 목록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리고, 신규 개봉영화의 극장 상영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는 TV드라마의 시즌이 종료된 후 DVD로 출시되기까지는 다소 기다려야 한다. 팔개는 석 달, 길게는 1년. 그래서 순간적 만족감에 길들여진 젊은 세代人 개인들은 기다릴 수 없어, Showtime, HBO, Netflix, Amazon Prime Video, Hulu, CBS Access, Paramount Network 등에 매달 엄청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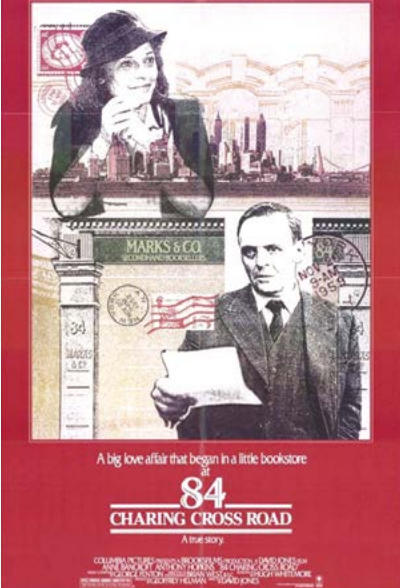
Leon poster

청료를 지급하면서 당장의 오락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나는 한달에 120달러씩 주문서 케이블 TV를 보는 걸 상상할 수 없다. 왜? 시간 낭비, 돈낭비니까. 이런 케이블 채널에서는 시즌 당 한 두 개의 히트 드라마를 방영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한물간 옛날 영화 시간 때우기 프로그램들로 채운다. 10주로 끝나는 그 시즌의 인기 드라마를 보자고 나머지 42주까지 시청료를 부담한다는 건 나로서는 경제적으로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계산법이다. 물론, The Walking Dead나 Game of Thrones를 안 보면 그 다음날 출근해서 따돌림 받을 상황이라면 울며겨자먹기로 감수할지도 모르지만 다행히 나는 출퇴근 안해도 되는 프리랜서라서...

내가 비싼 라이브TV 대신 DVD보기를 고집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DVD로 보는 연속극에는 8분~12분마다 들어가는 광고가 빠져서 반시간, 한시간 짜리 드라마 1회분을 리듬 끊기지 않고, 혈압 올리지 않으면서, 온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한국의 TV광고는 프로그램 앞뒤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했던 나는 처음에 유학와서 본 미국식 광고에 도저히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게 TV시청을 중단하게 만드는 데, 헛돈(?)을 안 쓰게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서론이 너무나 길었다. 이 글의 제목은 '영화 다시 보기의 즐거움'이니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 한국에서 30대 초반까지 살면서 어려서는 흑백TV로, 좀 커서는 극장에서 본 헐리우드 영화들을 재발견하는 재미를 술술 느끼고 있다. 아마도, 이제 중년에 확실히 들어섰기 때문에 항수병에 걸릴까 싶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이런 영화들을 볼 때는 우리말 더빙판이나 자막판이었다. 한마디로, 영어실력이 지금보다 더 짱아서 원문을 이해하지 못했고, 해당 작품의 진



84 Charing Cross Road poster

미를 간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잘못 이해한 부분, 내 기억이 틀린 부분, 잘못 번역된 부분까지 다 합치면, 거기다 검열 때문에 물리적으로 잘라나간 부분까지 고려하면 이런 영화들은 사실 재발견이 아니라 처음으로 본다고 해야 맞겠다.

어제, 1994년에 개봉되었던 <레옹>의 DVD(2005년 출시 특별판)를 도서관에서 빌려다 시 보았다. 미국에서만 <The Professional>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어서 오늘날 DVD의 제목은 둘을 합친 <Léon: The Professional>이다. 한국 개봉 당시 극장에서 보았었는데 지금은 중년 배우인 내털리 포트먼이 아주 어렸고, <그랑 블루>에서도 호연을 했던 장 레노가 암살선물로 레옹 역을 맡아 줄지에 고아가 된 어린 여자아이 마틸다를 도와 복수극을 펼치는 내용이라는 기억 정도만 남아 있었다.

<레옹>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은 위에 나열한 일반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 영화를 다시 보니, 역시나 놓쳤던 부분, 잘못 기억하고 있던 부분들이 꽤 많았고, 줄거리를 떠나 오늘날에는 전설의 반열에 오른 주연급 배우들의 연기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94년 한국 개봉 당시에는 감독

이 프랑수아 트뤼포프라 프랑수아영화라고 선전하던 기억이 나는데 DVD에 부록으로 실린 바하인드 스토리, 관계자 인터뷰 등을 보니 감독과 스태프는 주로 프랑스인들이었지만 (뉴욕의 캐스팅 감독은 미국사람), 영화 속의 언어는 영어이고 드라마와 액션이 펼쳐지는 공간은 뉴욕이며, 타이틀 캐릭터인 장 레노는 프랑스인이지만, 두번째 주인공 내털리 포트먼은 미국인(이스라엘 이중국적), 세번째 주인공 개리 올드먼은 영국출신인 그야말로 다국적영화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영화를 즐기러오만 즐겨도 무방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가면서 보면 영화 감상의 폭도 넓고 깊기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나는 고집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주인공 <레옹>역을 1948년생 프랑스 배우(형통으로는 모로코에서 성장한 스페인사람) 장 레노가 맡았었기 때문에 2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팬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이번에 다시 보면서 들었다.

이 영화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일단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중년의 암살전문가 레옹은 뉴욕시의 중하층 동네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이탈리아인이고 불법 이민자이다. 아내도, 연인도, 자식도, 친구도 없다. 온갖 충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뒷물일으키기를 한번에 수백개씩 하면서 몸을 단련하지만, 아파트 밖으로는 일할 때 외에는 안 나가고, 우유를 물처럼 마시고 (술은 전혀 안 마시는 것으로 나옴), 화병에 담긴 잎사귀 식물을 성숙도를 지녔지만 신체는 11살 어린아이였던 내털리 포트먼이 마틸다로 분했기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레옹의 정돈된 일상을 뒤엎게 되는 존재는 같은 층 아파트 옆집에 사는 12살 소녀 마틸다이다. 영리하고 조숙하지만 부모와 주변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걸도는데, 실상가상으로 마약거래하면서 어린 딸에게 난폭한 마틸다의 아버지가 조직에서 코카인을 훔치는 바람에 조직의 뒷에서 마약단속국의 부패한 요원 스탠스필드(게리 올드먼 분)의 분노를 사면서 온가족(아빠, 엄마, 10대 의붓언니, 어린 남동생)이 스탠의 손에 몰살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마침 동네 가게에 장을 보러갔던 마틸다만 빼고 마틸다는 학살이 벌어진 직후에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스탠과 그의 딸만인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걸 보고 자기집이 아닌 적 지나치면서 레옹의 아파트 문 앞으로 와 초인종을 누른다. 한참 망설이던 레옹은 문을 열어 혼절 직전의 마틸다를 들여 일단 아이의 목숨을 구한다.

그러나, 결국은 스탠이 마틸다의 존재와 얼굴을 알게 되어 레옹과 마틸다는 계속 거처를 옮기면서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된다. 그 와중에 레옹의 정체체를 알아낸 마틸다는 자신도 암살자로 훈련시켜 달라고 조르고 레옹은 망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마틸다를 진정시키려 노력한다. 하지만, 마틸다는 무참히 학살당한 4살짜리 남동생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여 레옹의 거둬

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스탠을 찾아 마약단속국 건물로 잠입하는데 영악한 사이코패스인 스탠은 마틸다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에 아이를 인질로 잡고서는 레옹을 유인한다. 레옹은 초인적 암살 기술을 발휘하여 마틸다를 구해내 도망치지만 이어서 스탠은 자신의 정부요원 지위를 이용해 200명의 중무장 전투경찰들을 레옹과 마틸다는 은신 중인 싸구려 호텔로 투입하여 기관총을 난사하고 로켓추진식 수류탄까지 발사하면서 둘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레옹은 걸을 떠나지 않으려는 마틸다를 자신도 탈출해 1시간 뒤에 만나게 될 테니 먼저 나가라고 설득하여 건물 환기구를 통해 간신히 밖으로 내보낸 후 좁은 은신처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경찰들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나머지 결말은 <레옹>을 처음 볼 분들을 위해 남겨놓는다. 줄거리를 거의 다 드러냈으니 무슨 재미로 영화를 보고 싶겠냐고 당연히 불평할 것 같다. 근데, 이 영화는 줄거리를 알고 봐도 즐기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레옹의 이상하고 독특한 버릇들은 장 레노의 연기를 통해서야 살아나고 이해가 되며, 어리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마틸다의 복수심과 레옹에게 표현하는 애정은 내털리 포트먼의 목소리와 몸짓을 듣고 보아야만 청중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직업은 킬러이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레옹의 순수성을 장 레노가 잘 포착해서 체화했기에 레옹이 원조교제를 꿈꾸는 징그러운 중년아저씨로 비쳐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화병에 담긴 잎사귀 식물의 성숙도를 지녔지만 신체는 11살 어린아이였던 내털리 포트먼이 마틸다로 분했기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영리하지만 위험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악의를 온몸에서 풍기는 미치광이형 사 스탠스필드(스탠) 역은 개리 올드먼이 아닌 평범한 중간 수준의 배우가 맡았었던데도 그냥 전형적인 악당으로 아무 개성없이 그려졌을 공산이 크다고 본다. 이 영화보다 먼저 <Sid and Nancy>, <Romeo is Bleeding> 같은 영화에서 불안정하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인물들을 노련하게 소화한 키크 올드먼이야말로 이 영화의 또 다른 일등공신이다. 올드먼이 윈스턴 처칠로 분해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을 받은 2017년작 <Darkest Hour>를 아직 못 본 이들에게 강추한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news@snuua.org



송윤정 (인문대 89)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친구 S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에 사는 S가 미주 한국일보에 실리는 내 글을 찾아 한국일보에 연락을 취해 한국일보에서 내게 그 친구의 이메일을 보내주었다. 나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S에게 이메일로 내 연락처를 보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기마자 대학 동기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몇 년 후 나도 미국에 왔지만, 미국에서 전화 통화만 하고 만나진 못했다. 그러다 언젠가 S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긴 채 지나왔는데 그 친구의 결혼식에서 본 이후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셈이다. 어느덧 사반세기가 지난 일이다.

그 친구에게서 카톡으로 답신이 왔다. 내 대학 동기 M이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고 발인하는 날이라 했다. M

"어느 누구도 저 혼자 온전한 섬이 아니다!.. / 누군가의 죽음은 나를 감소시킨다/ 나는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니!..."

과 고등학교 절친이었던 자기 대학 친구를 통해 자신도 알게 되어, 그렇게 M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연락이 단절된 나를 꼭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순간 내 머릿속은 행해지며 수십 년 전 대학교정에 서만났던 M의 모습에 떠올랐다. 유난히 피부가 하얗고 약간 곱슬진 머리를 항상 닷 색이 아닌가? 번역을 업으로 해서인지 너무 따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것도 같다... 이번에는 뭐 배송이 더 먼저 만드 분해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을 받은 1988년작 <그랑 블루>를 다시 만나봐야겠다. 많이 울면서 봤던 장면이 있었는데 감수성이 팍 줄어든 이 나이에 도 똑같이 울게 될까나...?

"멀리 있어서 와보진 못해도 친구 가는 길에 기도는 해 주라고 네 연락처를 찾았어. 암으로 많이 아팠는데 더는 고통 없는 곳으로 가서 편히 쉬기를 기도해 주자." S가 내게 말했다.

지난번 한국에 출장 가서 대학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중 한 친구가 M이 아파서 못나왔다고 하며 "본인이 아픈 것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길 원하니 모른척해라"고 귀찮게 했었다. 다음에 좀 나오면 함께 만나자... 그때가 이 세상에서 볼 마지막 기회였음을 어찌 알았겠는가.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섭리가 내게는 여전히 너무나 낯설다. 한국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서 자라고 사는 동안 나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묘지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죽음도 삶의 일상 중 하나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 채 살아온 듯하다. 날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너무나 평범한 사실을...

미국에 와서 처음 집을 사려 집을 보러 다닐 때 주택가 바로 옆에 묘비가 즐비한 묘지가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었다. 내가 사는 동네 주택가로 진입하는 두 길에 만나는 한 코너에 연봉은 백달러로 지어진 제법 커다란 교회가 서 있는데, 교회 건물과 찻길 사이에 넓은 묘지가 있다. 1846년에 설립된 이 교회의 키 큰 아로드리나무들과 그 아래 많은 묘비가 동네 입구 풍경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이 길을 지날 때마다 마치 그곳의 공기에 죽은 자의 숨이 묻어있는 듯이 아이들은 차 안에서 숨을 멈추었다가 묘지가 다 지난 후 숨을 내

쉬곤 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길을 지나며 어째서 나는 한 번도 멈추어 서서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둘러볼 생각을 못 했을까. 아이들과 그 공간에서 낯선 이들의 묘지일지라도 그들의 묘비를 보며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음을 느끼고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길을 지나며 차를 세우고 묘지에 멈추어 섰다. 울분 파르파르 새색이 솟아나던 때에 돌아가신 아빠와 한여름의 녹음이 짙어진 7월에 세상을 떠난 친구를 희망한 내일을, 가을 단풍을 바라보며 삶과 문구를 둘러보았다.

푸른 하늘, 눈부신 햇살이 짙은 초록 잎 사이로 반짝이는 가운데 매미와 풀벌레 소리가 묘비가 늘어진 그 고즈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대학 영문학 수업 시간에 읽었던 존 댄(John Donne)의 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가 떠올랐다. '어느 누구도 저 혼자 온전한 섬이 아니다!.. / 누군가의 죽음은 나를 감소시킨다/ 나는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니.'

은은한 종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하다.



김지영 (사대 69)

산과 계곡이 부른대서 따라갔더니...

“내일 산행은 Josephine Creek canyoneering (ACA 3A) + 1.1mile + 670 ft gain 을 하겠습니다.” 7월 5일 자 김동근 대장님의 메시지. 이 짧은 메시지에 따라 7월 6일 토요일 12명의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등산반 용사들이 모였다. 그 다음은 역사가 됐다. (The rest is history..)

막내 유혜연(음대 79)의 비명 - 기절초풍

어딘지 모르고 따라갔다. 캐너니어링, 목에 착착 감기는 매력적인 단어. 나의 생애 두 번째 캐너니어링이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다. 파킹을 하고 내려간다. 4분의 1 마일의 짧은 거리. 그런데 길이 없다. 두 발로 갈 수 없는 그곳. 내 발로 기다가, 엉덩이 미끄럼. 그렇게 가다 보니 더 이상 갈수 없는 절벽. 대장님이 자일을 나무에 매고 아래로 특 던지신다. 대장님이 한 사람씩 자일에 매달아 준다. 하나씩(harnessing) 완료. 다음은 씩씩하게 밧줄을 잡고 절벽에 두 발을 굳건히 디디고 (planting), 캥거루처럼 경중경충 뛰어 내리는 단계(rappelling).

첫 절벽 30피트, 두 번째 절벽 60피트, 무사 통과. 그래도 산행 중 틈틈이 연습해온 보람이 있다. 그런데 그날 캐너니어링의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 170피트짜리, 폭포 하강! 착지 지점이 안 보인다. 중간에 약간의 돌출(overhang), 그리고 제법 큰 물길! 절벽을 따라 흐르다가 공중으로 떨어진다.



유혜연 회원이 폭포를 따라 하강하고 있다.

이 폭포를 하강해야 하는 길이가 무려 내 키의 30배, 눈이 아물거리고 정신이 아득하다. 그래도 내려가는 수밖에 길이 없다. 일단 하니스를 하고 밧줄에 매달린다. 대장님은 먼저 내려가셔서 밑에서 밧줄을 잡아 주신다. 공중에 매달려서 밧을 디디려 하나 절벽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겨우 밧을 디디면 폭포 물이 줄줄, 아니면 미끄럼. 그래도 내려왔다. 물구멍이에 착지, 아니 착수. 기절하고 초풍을 한다. 그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달콤한

캐너니어링.

막내에서 두 번째 언니 제영혜(가정대 71) - 1,000 달러 짜리 공포 체험

첫 번째, 두 번째 하강은 편안했다. 산악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덕에 래플링을 몇 번 연습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 그런데 세 번째 폭포 하강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아래로 떨어질 자일 끝이 안 보인다. 밧줄 하나 믿고 미지의 세계로.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경우 “기요미즈 때라의 무대 위에서 뛰어내린다”라는 말을 한다지. 교도에 있는 절의 나무로 쌓은 테라스, 여기서 뛰어내리던 살아날 확률이 85%라고 한다.

하여튼 내려간다. 발이 절벽에 닿지 않아 허우적, 병그르르, 공중에서 밧줄이 돈다. 다시



평균 연령 70대 중반의 서울대 남가주 동문회 산악반 회원들의 능률한 모습.

정신 차리고 필사적으로 절벽을 찾아 밧을 디딘다. 이번에는 미끄르르 물에 젖은 자일이 엄청 무겁다. 이렇게 영원같이 아득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착수. 무릎까지 닿는 물 웅덩이. 170피트 하강 시간이 13분.

그 13분이 참 비싼 시간이었다. 내려와서 정신을 차리고 다음에 내려오는 대원의 멋진 모습을 찍으려 전화기를 찾으니 없다. 아직 할부금도 다 갚지 못한 삼성 갤럭시 S9 -- 매는 나보다 더 무서웠나보다. 내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동안 주머니에서 슬그머니 나와서 물속으로 잠수.

전화기를 찾기는 했는데 액정이 깨져서 반만 나온다. 그래도 통화도 되고 기능은 살아 있다. 다만 나와 전화기 소통이 제대로 안되어서 쓸모가 없다. 그래서 새 전화기를 살 수 밖에. 그렇게 1,000달러 짜리 공포를 체험. 몇 년 전에도 전화기를 뒷주머니에 넣고 바위타기 (bouldering)를 하다가 완전히 갈아 먹은 이력이 있다. 전화기 뿐만 아니라, 신발도 버려야 했다. 밀창이 다 나가 버렸다. 지난 주 이 산에서 조난, 일주일 후에 구조된 한국인 할아버지 신발이 생각난다. 그래도 뿌듯한 자신감, 다음에는 언제 어디로

캐너니어링을 갈까?

왕 고참 김홍목(문리대 60) - 한 몸의 능력에 대한 명상

시작부터 무섭다. 대장이 가리키는 내리막, 1/4 마일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80% 이상의 경사.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대장은 밑에까지 답사를 하고 올라와 우리를 독려한다. 대원을 맡은 안하지만 80%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 듯.

갈팡질팡을 하는 사이 나 혼자 남았다. 멀리서 조정시 박사가 시멘트 밧물 고랑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간다. 나도 그쪽으로 엉덩이를 대고 거의 거꾸로 매달리는 기분으로 내려간다. 일행은 보이지 않지만 잡목 너머로 목소리가 들린다. 그쪽으로 전진. 오래전에 들던 군가, “천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 가락에 따라 잡목을 헤치고 나아간다. 그리고 밧줄 하강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래전 경험을 되살리는 연습. 내 몸의 뇌신경 명령이 근육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스스로 관찰해가며 이 한 몸의 능력에 대한 명상을 한다. 80 평생 기특하게 잘하고 있구나.

한 번에 한 사람씩 줄을 타고 내려가니 시간이 걸린다. 마지막 170피트 폭포에서는 거의 두 시간 반. 그래서 참가자 중 서울대 합

모두 파킹장에 모인 시간이 밤 9시. 하산. 210번 프리웨이 가까이 오니 전화가 터진다. 그동안 여러 대원 가족들이 안절부절. 조난 신고까지 했다고. 뒤쫓이는 라운드테이블 피자, 맥주.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서울대 동창회 산악반의 추억. 할 수 있을 때 하자.

줄리 조 (공대 60 조정시 사모님) - Oh, help

인생은 뜻하지 않은 곳으로 흐르는 재미가 있다. 2019년 7월6일 산행은 원래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원래 가려던 곳이 길이 막히는 바람에 막판에 행선지가 바뀌었다.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회원들.

가벼운 마음으로 조세핀 크릭에 도착. 그런데 그계 아니네. 세 번째 하강 코스 폭포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 대사가 생각난다.

“Oh, help. I have confidence in confidence alone. Besides which I have confidence..... in me. Hello. Here I am.” 옛날에 본 Sound of Music 영화에서 마리아가 운명의 캠프트 집 앞에서 하던 말. “.....”은 “덜덜덜덜..”로 읽으면 된다. 그래도 내려간다. 나를 믿고, 아니면 나에 대한 믿음을 믿으며, 밧줄에 매달려서도 물에 젖지 않으려고 용을 쓴다. 맘대로 안 되네. 드디어 끝이 보인다. 물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절벽에 나뭇가지를 잡고 안간힘. 그런데 오십이 한참 지난 담에 찾아온 오십견 때문에 왼쪽 어깨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 숨도 멈춰지고 눈물이 솟 뚝뚝. 그리고 풍덩. 잠수 착지.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 배낭을 여니 배낭속의 옷가지도 다 물에 젖었네. 오들오들. 그래도 대원들이 서로 대견해서 어깨를 두드리는 바람에 맘이 놓인다.

무사히 내려왔다는 안심도 잠시. 파킹장까지 올라가야 하는 시련이 기다린다. 자갈, 돌덩이 급경사 산을 거어오른다. 날은 저물고 기운은 없고, 그래도 그 길 밖에 없으면 한다. 대장님의 격려와 안내로 무사히 파킹장으로. 20년 산행에 가장 어려웠던 날.

김군속 (대장님 사모님) - 라소용(羅生門)

거리로는 1.7마일, 시간으로는 9시간, 우리 12명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런데 각자 느끼는 감정은 서로 같지 않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명화 '라소용'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어느 도시의 대문 라소용에서 비를 피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두고 다 자기 입장에서 전혀 다른 경험담을 이어가는 이야기.

세 번째 170피트 폭포 하강 코스에서는 한 사람이 내려가는데 약 15분 정도 걸린다. 12명이 다 내려가려면 두 시간 이상. 내려가신 대원들이 뿌듯한 자만감을 즐기고 있는 동안 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좁은 공간



김은한 (의대 60)

각배와 소그드 사람들



북천동 마두식 각배 (보물 598호)

는 감히 먼저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비로써 각배가 입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각배는 나라마다 사용하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대관식 때 각배에 기름을 담아 왕의 머리에 뿌리는 의식을 했었고, 스키타이에서는 전쟁때 전우들의 피를 섞은 술을 각배에 담아 마시며 병사들의 전투 의욕을 올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위지 동이전에 행상(行觴)이라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는 각배 한개를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돌려가며 술을 마시는 풍속이었다고 한다.



기마 인물형 토기 각배 (국보 275호)

이는 BC 330~323,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장을 계기로 헬레니즘 문화의 동진 선상에서 한반도에서도 각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상한 점은 신라, 가야에서는 일절 볼수 없고 중국에서도 별반 볼수 없다는 점이다.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이미 석탈해 왕때 (AD 57~80) 각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 내용이 이렇다. 어느날 석탈해는 동악(東岳)에 올라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심부름꾼을 시켜 물을 떠오게 했다. 심부름꾼이 물을 떠가지고 오다가 제가 먼저 마시고는 탈해에게 드리려 했다. 그러나 각배 한쪽이 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보고 탈해가 심부름꾼을 꾸짖자, 그는 맹세하기를 앞으로

에서 초조하게 기다린다. 하나하나 마음속에 다른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며 마음속의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간다.

그 기다리던 좁은 공간 옆으로 옷나무가 있다. 옷나무의 독성에도 각자 다르게 반응. 나는 옷나무에 민감해서 옷이 올라 고생. 다른 분들은 무사한 듯.

우리 대장님 김동근 (공대 60) - 그대 먼 길손이여

連峰去天不盈尺 (연봉거천불영척)

이땅은 산봉우리는 하늘과 한 자 사이도 못된다. 枯松倒掛倚絕壁 (고송도괘의절벽) 마른 소나무는 절벽에 거꾸로 걸려 있다. 飛湍瀑流爭噴壑 (비단폭류쟁헐회) 여울물 튀고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 시끄럽다. 欲漣轉石萬壑雷 (빙애전석만학뢰) 낭에 부딪고 돌을 굴러 굴짜기마다 천둥이다. 其險也若此 (기험야약차) 그 험하기 이와 같소. 嗟爾遠遊之人胡爲乎來哉 (사이원도진인호위호래재) 아야, 그대 먼 길손이여, 어이하려고 왔소? - 李白의 蜀道難 중에서

그날 예상보다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



김태형 (의대 57)

텃밭

뒷마당 아담한 우리 집 텃밭 저마다 뽕내는 푸성귀 가족 상추, 오이, 가지, 고추, 미나리

이른 새벽 다가오는 사슴 가족 엄마 아빠 그리고 뒤따르는 새끼 두 마리

어느덧 잠깨어 창문을 열고 등 뒤에서 외치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

아니 아직도 울타리 안쳤어요? 2019년 3월 27일



투르크 메니스탄 니사의 마두식 각배

이 아니고 서아시아와 중앙 아시아 지역인 파르티아에서 시작되었다 (BC242~AD226). 파르티아는 이란계 유목민들이 세운 나라로 중국 이름으로는 안식(安息)국이라고 불렀다. 예전 파르티아의 수도였던 “니사”에는 헬레니즘 문화의 상징이었던 그리스의 유리병, 은동제 에로스상, 그리스 아테나상, 그리고 40여점의 각배가 투르크 메니스탄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니사”의 마두식 각배도 이곳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각배들은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유물로 신라, 가야, 일본에까지 전해진 문명 교류의 사례가 되는 대표적인 유물인 것이다.

그들은 인도의 후추, 로마와 그리스의 유리 제품, 페르시아의 은그릇, 그리고 가장 고가품인 중국의 비단을 독점하였다. 당시에 중국 비단의 무게와 은의 무게가 똑같은 가격이었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꼽

으라면 아래 중국사람을 일컫지만 장사에 도가 트인 사람들은 이란계 파르티아 사람들로 아들을 소그드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중국사람들이 세로짜기 기법으로 비단을 짠다는 것을 알고 가로짜기의 대담한 문양을 넣어 비단을 만들었다. 경주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일수사자공작문석(立樹獅子孔雀文石) 역시 원 주위에 연주문을 그리고 나무와 공작 두마리를 그리는 소그드인들이 자주 쓰는 기법이었다.

대당 서역기에 현장 법사가 이르기를 소그드 사람중 절반은 상인들이었다고 한다. 경주 원성왕릉과 흥덕왕릉에는 눈이 깊고, 코가 크고, 수염이 많은 무인석상이 보이는데 오른쪽 뒤 허리에 찬 주머니는 소그드인처럼 유목민들이 사용했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처용가의 주인공이 조선시대때 간행된 음악이론서 악학 껀법에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역시 소그드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소그드인들이 역사적인 전기를 맞이하게된 것은 안록산의 난이었다. 안록산은 소그드인 아버지와 돌궐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상인이었다. 그는 당나라 양귀비와 친한 사이였는데 안록산의 난이 실패한 뒤에 중국에서 대대적인 소그드인 숙청이 감행되어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부산 북천동의 마두식 각배는 소그드인들이 활약할때 사용한 물건이었다고 한다.

하고 노련하게 행동해 주신 대원들에게 감사, 또 감사. 그리고 로프, 하니스, 레펠 등 하강 장비를 꼼꼼히 챙겨주신 백정현 동문께 특별히 감사. 우리 모두 이렇게 산행을 같이 할 수 있는 행복을 오래 누리기 바라며, 다음 등산을 준비한다.

가지 않은 사람 김지영 (사대 69) - 예쁜 조세핀의 심술

나폴레옹이 사랑한 여자, 나폴레옹을 사랑하지 않은 여자. 그녀의 이름이 조세핀이다. 나폴레옹의 황후 그 조세핀의 매력 때문에 평균 70대 중반의 우리 산악반원들이 이번

신들린 산행을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심술 때문에 즐거움 고행길이 되었고 제가 눈팅만 하는 서울대 동창회 산악반 카톡을 보며 간접적으로 공포와 환희를 대신 느낄다. '기절초풍' 딱 맞는 말이다. 峯巒、風、 혼자라 이렇게 쓴다. '쫄'자는 모른다. 내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국어대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글자도 모르는 말이 생겨났다.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산악반, 말로서 말할 수 없는 말의 길이 끊어진 득도의 길을 간다. 그때 같은 길을 걸었던 12명의 도반들은: 김동근 부부, 조정시 부부, 박진국 부부, 이상우, 신영찬, 김홍목, 백정현, 제영혜, 유혜연.



홈커밍데이 40주년 미주 동문 참여 일정

- 1) 10월 15일 (화): 서울대 개고기념식 및 선 후배 질의 응답시간
- 2) 10월 16~19일 (수/목/금/토): 서해 및 남해 3박 4일 여행 (미주 동문 및 본국 동문 참여)
- 3) 10월 20일 (일): 서울대 홈커밍데이 등반대회 및 서울대 총장실 방문
- 4) 10월 21일 (월):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발당 방문 및 서울대 교내 투어

◆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Ho-Am Art Hall)
 · 주소: (151-0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동 239-1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 회관
 · T: 02-880-0300 | F: 02-885-0255 | mkim0131@msn.com | http://www.hoam.ac.kr
 · 예약 신청 바로가기: http://www.hoam.ac.kr/rooms/reservation.php
 · 연락처: 서울대 미주동창회 조직국장, 백옥자 818-395-1967 | okjapaik@gmail.com

미주동창회 회장 신응남

서울대 홈커밍데이 여행 일정표 (서해 3박 4일, 2019년 10월 16~19일)
 \$529.00 + 항공료, 연락처: 백옥자 (Jace Lee) 818-395-1967

DATE	CITY	TRAFFIC	ITINERARY	MEALS
제1일 10/16 (수)	인천 서울	항공 전용차량	(06:00am) 제2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 1층입국장 B출구 6번 출입문 앞(안내데스크) "US아주투어 피켓" (06:30am) 제1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1층입국장 D와 E사이 10번 출구 앞(안내데스크) "US아주투어 피켓" (08:30am) 강남(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정문 앞) 출발 "US아주투어 피켓" 청주로 이동 대통령 전용 별장 청남대 중식 후 순창으로 이동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숲 강강산 국립공원 담양으로 이동 가장 키가 큰 식물이 담양이 있다고요? 담양 죽녹원 광주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광주 홀리데이인 또는 동급 (TEL : 062-610-7000) (7월달과 8월은 목포 현대 또는 동급 호텔에서 투숙합니다.)	B: X L: 우렁쌈밥 D: 대통령과 떡갈비
제2일 10/17 (목)	광주 순천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순천으로 이동 낙안읍성 조선시대의 읍성 대한민국의 사적 제302호 중식 후 2015년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하며 클래스가 다른 꽃들의 향연 보성으로 이동 보성녹차밭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에서 회천면 사이에 걸쳐 있는 차 재배단지 중식 후 여수로 이동 오동도 (여수밤바다 야경) 190여종의 희귀수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동백섬으로 유명하며 한려 해상 국립공원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순신대교가 보이는 객실에서 투숙 및 휴식 호텔: 광양 럭희 호텔 또는 동급(TEL: 061-913-5000)	B: 호텔뷔페 L: 별교교막 D: 갈치조림
제3일 10/18 (금)	광양 통영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동양의 나폴리 통영으로 이동 ▶ 선택관광: 통영 케이블카 (US\$ 20.00 p/p)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긴 1,975m의 케이블카로 정상에 오르면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경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으며 세계 4대 해전에 해당하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다도해입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도도 이동 및 중식 ▶ 선택관광: 장사도 (US\$ 40.00 p/p) 푸른보석 위 남도의 작은 섬 장사도 동쪽에 몰려다 한려수도의 절경과 동백의 조화로 절정을 이루는 2011년 12월 문화 해상 공원의 탄생 기상으로 인해 장사도 불가시 한산도로 대체됩니다. 아주만의 특전 거제 바다를 바라보며 호텔식으로 석식 후 투숙 바다 위로 펼쳐진 산책길을 걸으며 거제의 밤바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호텔: 거제 대명리조트 또는 동급 (TEL :1588-4888) 100% DELUXE FULL OCEAN VIEW 보강 거제 대명리조트 호텔	B: X L: 우렁쌈밥 D: 대통령과 떡갈비
제4일 10/19 (토)	거제 김해 (부산)	거제대교	호텔 조식 후 거제 출발 거제대교 전망대에서 거제대교 조망 부산산 거제를 잇는 길이 8.2km의 다리로, 해상교 사장교와 해저의 침매터널(3.7km)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공항으로 이동 후 이륙 김해공항 도착 후 자유해산 (부산역까지는 개별 이동) (김해공항에서 부산역까지는 개별 이동이며 공항 1층에서 부산역 방향 공항 리무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B: 호텔뷔페 L: X

제3일 10/18 (금)	광양 통영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동양의 나폴리 통영으로 이동 ▶ 선택관광: 통영 케이블카 (US\$ 20.00 p/p)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긴 1,975m의 케이블카로 정상에 오르면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경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으며 세계 4대 해전에 해당하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다도해입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도도 이동 및 중식 ▶ 선택관광: 장사도 (US\$ 40.00 p/p) 푸른보석 위 남도의 작은 섬 장사도 동쪽에 몰려다 한려수도의 절경과 동백의 조화로 절정을 이루는 2011년 12월 문화 해상 공원의 탄생 기상으로 인해 장사도 불가시 한산도로 대체됩니다. 아주만의 특전 거제 바다를 바라보며 호텔식으로 석식 후 투숙 바다 위로 펼쳐진 산책길을 걸으며 거제의 밤바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호텔: 거제 대명리조트 또는 동급 (TEL :1588-4888) 100% DELUXE FULL OCEAN VIEW 보강 거제 대명리조트 호텔	B: X L: 우렁쌈밥 D: 대통령과 떡갈비
제4일 10/19 (토)	거제 김해 (부산)	거제대교	호텔 조식 후 거제 출발 거제대교 전망대에서 거제대교 조망 부산산 거제를 잇는 길이 8.2km의 다리로, 해상교 사장교와 해저의 침매터널(3.7km)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공항으로 이동 후 이륙 김해공항 도착 후 자유해산 (부산역까지는 개별 이동) (김해공항에서 부산역까지는 개별 이동이며 공항 1층에서 부산역 방향 공항 리무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B: 호텔뷔페 L: X



담양 죽녹원



오동도 (여수밤바다 야경)



선택관광: 통영 케이블카



거제대교 전망대에서 거제대교 조망



박경일 (송대 69)

내가 만약 촛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 촛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약 촛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 촛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어둠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 나짐 히크메트-

20세기 터키가 낳은 위대한 낭만주의 시인 나짐 히크메크의 시다. 그는 해군사관학교 재학시절 혁명운동에 가담한 사건에 연루되어 공산주의자로 기소, 28년 형을 받고 12년간 옥고를 치렀던 시인이다. 솔직히 이게 그에 대해서 내가 뒤늦게 알게된 정보의 전부다. 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의 시를 좋아한다.

그의 종교가 무엇인지?, 그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학력과 경력의 소유자인지?, 그의 가정배경은 어떠한지? 또는 그의 도덕관이나 윤리관,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시는 시로만 읽는다. 시뿐만이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내 앞에 다가서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평가하려고 노력한다. 그 사람의 과거사나 사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가요 중에 태진아가 불러 히트를 쳤던 '옥경이'라는 노래가 있다.

"희미한 불빛아래 마주앉은 당신은/연젠가 어디선가 본듯한 얼굴인데/
고향을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도/ 잃어버린 이야기 대답하지 않네요.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 있구나/너도 나도 모르게 흘러간 세월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물어도 대답 없는 고개속인 옥경이!"

우리 옛 속담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나이까지 인생을 살다보니 그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 시간이 변화의 만병통치약이었다. 시간때마다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죽음' 밖에 없었다. 역설적으로 세월에 따라 변화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뻗뻗하게 굳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나짐 히크메트를 그의 대표적인 시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진정한 여행을 통해서 처음으로 만났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아있는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그 때가 바로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이지만 이 시를 미국인들을 상대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지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 장로다. 그의 반응은 "이름은 보니까 인도 힌두교인이 아니면 모스람 신도 같은데 나는 그들의 사상이나 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그 때가 바로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그 때가 바로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그 때가 바로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그 때가 바로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그 때가 바로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그 때가 바로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그 때가 바로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었다. 그들에게 비친 나의 모습은 영원한 동양인 이민자였다. 나는 가끔 그들로부터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너의 조상은 어디서 온 이민자냐?"고 되묻곤 한다. 나의 질문을 받은 그들은 "그런 질문은 평생동안 처음으로 받아본다"며 당황해 하면서 못마땅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혈통역사를 털어놓는다. 일대, 이대, 혹은 삼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미국인들은 이민자들이거나 이민자들의 후예들이다.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대부분 백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네는 여름철이 되면 텅빈 절간과 같이 조용하다. 밤낮으로 울어대는 매미소리, 아침 산새들의 지저귀, 그리고 가끔씩 먹이를 찾아 정원을 방문하는 사슴들, 철없이 나무를 오르내리며 여가를 즐기는 다람쥐들의 모습을 만 보일 뿐, 인기척이라고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이 여름 가족 휴가를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두달전부터 삼년전에 떠났던 직업전선에 다시 뛰어들었다. 몇년간 매달받은 소셜 씨큐리티에 의존해서 살다보니 주머니 사정

그들은 겸연쩍은 얼굴로 머뭇거리다가 "글쎄요. 경제적으로는 잘먹고 잘살지만 조국 생활에 비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일과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고달픈니다" 늘상 들어온 대답이었다.

그들의 지적 논리는 이렇했다. "세상이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 미국만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가난한 외국인들에게 이민을 허용하고, 아메리칸 인디언 후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 곳을 마련해 주고, 흑인들 노예 후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특혜로 보상해 주는 나라가. 그나마 백인 기독교인들이어서 그렇지요"

그의 주장이 그가 평생 교회에서 배워온 교리에서 비롯된 아주 당연한 논리일지는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맥락의 그러나 웬지 무섭고 섬찝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들이 만약 자신들이 인디언들, 흑인들의 후예에 들고 해도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변변치 않아서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다행히 보형용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았던 탓으로 언젠고 결심한 하면 필요한 만큼의 돈은 벌 수가 있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인간들에게 돈처럼 요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예수의 "돈에 집착하는 돈벌레 인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고 했던 말의 의미가 요즘 들어서야 조금씩 이해가 간다.

입만 열면 신앙이니 사랑이니 하고 떠드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오금을 못 퍼는 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미국사회다. 부족한 액수 만큼만 보충하겠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막상 돈이 들어오니까 자꾸 돈독이 올라만 간다. 그래서 남들이 피하는 주말이나 무더운 날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일벌레가 되고 말았다.

"캐롤에겐 경제적 부담을 주고싶지 않다"는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가면서, "체감온도가 화씨 110도가 넘으니 노력자들은 조심하라"는 TV News 경고를 무시하고 저번

주말에도 새집들 공사 현장을 찾았다. 눈을 씻고 봐도 미국 백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프카니스탄에서 온 이민자들이 워셔츠를 벗은 알몸으로 땀을 펄펄 흘리며 건축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손발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미안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물었다. "미국사회가 당신들이 살던 나라보다 더 좋으세요?" 하고 내가 이민자들을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다.

그들은 겸연쩍은 얼굴로 머뭇거리다가 "글쎄요. 경제적으로는 잘먹고 잘살지만 조국 생활에 비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일과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고달픈니다" 늘상 들어온 대답이었다.

그들의 지적 논리는 이렇했다. "세상이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 미국만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가난한 외국인들에게 이민을 허용하고, 아메리칸 인디언 후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 곳을 마련해 주고, 흑인들 노예 후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특혜로 보상해 주는 나라가. 그나마 백인 기독교인들이어서 그렇지요"

그의 주장이 그가 평생 교회에서 배워온 교리에서 비롯된 아주 당연한 논리일지는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맥락의 그러나 웬지 무섭고 섬찝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들이 만약 자신들이 인디언들, 흑인들의 후예에 들고 해도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변변치 않아서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다행히 보형용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았던 탓으로 언젠고 결심한 하면 필요한 만큼의 돈은 벌 수가 있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인간들에게 돈처럼 요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예수의 "돈에 집착하는 돈벌레 인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고 했던 말의 의미가 요즘 들어서야 조금씩 이해가 간다.

입만 열면 신앙이니 사랑이니 하고 떠드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오금을 못 퍼는 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미국사회다. 부족한 액수 만큼만 보충하겠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막상 돈이 들어오니까 자꾸 돈독이 올라만 간다. 그래서 남들이 피하는 주말이나 무더운 날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일벌레가 되고 말았다.

"캐롤에겐 경제적 부담을 주고싶지 않다"는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가면서, "체감온도가 화씨 110도가 넘으니 노력자들은 조심하라"는 TV News 경고를 무시하고 저번

캐롤에겐 경제적 부담을 주고싶지 않다"는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가면서, "체감온도가 화씨 110도가 넘으니 노력자들은 조심하라"는 TV News 경고를 무시하고 저번



이수호 (보건대학원 69)

감정과 건강

한의학에서는 모든병의 근원은기(氣)의 변화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기(氣)란 생명활동의 현상으로 혈(血)과는 분리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칠정(七情)이란 분노(憤怒, anger), 기쁨(喜, joy), 사색(思索, thought), 근심(憂, anxiety), 슬픔(sadness), 놀람(驚, fright), 공포(恐怖, fear)를 말하며 이 칠정은 5장6부(五臟六腑)와 밀접한 관계속에서 질병 발생의 내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모든 칠정의 변화는 5장6부에 배속시켜 음양(陰陽) 오행(五行)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은 5장6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5장6부의 변화는 외부로 표출하기도 한다. 감정의 변화는 내부 5장6부와 밀접한 관계속에서 정서적, 정신적 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날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른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분노, 기쁨, 사색, 근심, 슬픔, 놀람, 공포, stress로 인한 불안한 감정이 계속되어 축적되거나 또한 감정의 장애 조절을 적절히 하지 못하면 우리 신체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인체의 음양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간-담(肝-膽, liver-gall bladder)은 5장6부(五臟六腑)중에서 목(wood)에 해당하며 칠정(七情) 가운데서 분노(憤怒, anger)를 주관하는 장기(臟器)인 것이다.

모든 칠정(七情) 감정의 발로는 너무나 지나쳐서 태과(太過)하거나 또는 너무나 부족해서 미급(未及)하여도 정상이 아님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양의 균형을, 즉 중용의 도(中庸之道)를 유지해야 정서적(情緒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 상태에서 건강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부모님, 가족 친척 사랑하는 애인, 가까운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슬퍼하여 흐르는 슬픔의 눈물은 정상적 눈물로 건강에 지장이 없지만 너무나 지나친 슬픔이 계속 될 때에는 신체 음양(陰陽)의 불균형으로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지나친 분노와 울분(鬱憤)은 간(肝)에 영향을 주어 심할 경우에는 화병 또는 정신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분노(憤怒)는 간(肝)을 상(傷)한다고 했으며 간(肝, liver)과 분노(憤怒, anger)는 오행이론(五行理論)으로 목(wood)에 속하며 밀접한 관계로서 봄(春), 동쪽, 발생, 청색을 상징한다. 봄에는 대자연의 기(氣, qi, energy)가 만물이 소생하듯 내부로부터 외부로 발산(發散)하려는 기(氣)의 작용이 있는데 간(肝)의 생리적 특성도 이와 같이 대자연의 기(氣)를 따라 외부로 퍼져 발산하려고 한다.

목(木), 즉, 간(肝)의 기(氣)는 곡직(曲直,

bending and the straightening) 이라하며 봄의 기운이 발생과 외부로 발산하려는 특성이 있는 것처럼 목(木) 즉 간(肝)의 기(氣)도 외부로 퍼져 나가려고 한다.

만약 분노(忿怒, anger)가 장기간 계속되면 근육 계통과 간-담 경락(肝-膽 經絡, liver-gall bladder meridian)의 기(氣)순환에 장애를 주어 간(肝)의 확산과 외부로 확산 발산하려는 기(氣)의 순환이 정체(滯滯, stagnation)됨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분노하여 기(氣) 순환에 장애를 주면 상기(上氣)가 나타나고 기(氣)가 억압되거나 흥분되어 외부로 발산하지 못하면 분노한 안면에는 청색(靑色)이 나타나고, 입 맛이 시고, 편두통, 후두통, 흉협통, 불면, 3 다몽(多夢), 월경불순, hysteria, 우울증, 현운증(vertigo), 유방장통(乳房脹痛), 복통, 인후에

매실(梅實)씨가 걸린듯 뱀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지지 않는 매핵기(梅核氣, plum pit qi, globus hystericus)증상이 나타난다.

분노의 조절과 치료는 간-담(肝-膽, liver-gall bladder) 울체되고 기체(氣滯)된 경우에는 발산(發散, disperse)과 소통(疏通)을 위해서 약물 치료와 간-담경락(肝-膽經絡, liver-gall bladder meridian)의 기순환을 도와 주어야 한다.

기쁨(喜, joy)은 심장-소장(心-小腸, heart-small intestine)이 주관하고 심장은 정신 질환, 혈액순환에 관여한다. 적당한 기쁨은 우리 생활에 즐거움과 행복감, 희망을 주지만 그러나 기쁨(joy)이 지나치면 심-소장(心-小腸, heart-small intestine)을 상(傷)한다고 하였다. 음양오행이론(陰陽五行理論)으로 심-소장(心-小腸, heart-small intestine)은 화(火)에 속하고 여름(summer), 남방(南方, south), 더운 기(氣)가 상승(flaming upwards)하고 적색(赤色)을 상징한다. 대자연의 기(氣)가 상승하듯 심화(心火)도 더운 기(氣)가 상부로 치솟게 된다. 뜨거운 화(火)는 인체의 진액(津液)을 손상시킨다. 지나치고 너무나 흥분된 기쁨(joy)은 소장(心-小腸, heart-small intestine)을 상하게 하며, 기(氣)가 늘어지게 되며 억압된 화(火)를 발산시키되 기(氣)가 과도하게 발산하고 늘어짐(flow slowly)으로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과도한 기쁨은 심-소장경락(心-小腸, heart-small meridian)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 불면 또는 수면과다(睡

眠過多, hypersomnia), 입맛은 쓰고, 자한(自汗, spontaeosweating), 부정맥(不整脈, arrhythmia)이 나타난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정신은 심(心, heart)이 주관하며 정신질환은 화병(火病, hwabyung), 심화병(心火病), 율화병(鬱火病)으로부터 연유되기도 한다.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억제되면 기(氣)의 순환이 문란케 됨으로 오장 육부의 진음(眞陰)이 소모되어 불안, 초조, 화를 잘내고 입맛은 쓰다.

즐거움이 심(心, heart)을 상(傷)했을 때 이에 대한 치료는 심화(心火, heart fire)를 조절해야 하는데 대자연(大自然)의 외부로 발산하려는 기(氣)의 순환을 도와주고 흥분된 기(氣)를 진정시키고 소모된 인체의 체액(體液)을 보 해주고 심-소장경락(心-小腸經絡, heart-small intestine meridian)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

오행 이론으로 사색(思索, thought)은 토(土, earth)에 속하고 과도하거나 지나친 생각(thought)은 기(氣)가 정체(滯滯, stagnation)됨으로 비-위(脾-胃, spleen-stomach)를 상(傷)한다고 했으며 중앙의 토(土, earth)로 곡식을 심고 거두는 것을 상징하듯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비위(spleen stomach)가 주관하며 방위로는 중앙이며 장하(長夏, long summer)로서 황색(黃色, yellow)을 상징하며 토(土, earth)는 대자연의 기(氣)가

통합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며 우리 인체의 전신 기능도 통합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데 지나친 생각으로 기(氣)가 정체되어 기혈 순환에 장애를 줌으로 불안, 흥분이 불편하고 역류(逆流, regurgitatio), 활변 및 변비, 두통, 식욕부진, 입맛은 달고, 오심, 구토, 만성위염, 위통, 비만(痞滿)이 나타난다. 과도하거나 지나친 사색(excessive thought)은 비위(脾胃)를 상(傷)하게 하며 치료는 정체된 기(氣)를 소통시키고 비위경락(脾胃經絡, spleen-stomach meridian)을 조절해서 화평하게 조화시키며 울체된 기(氣)를 풀어 주어야 한다.

지나친 근심(憂, anxiety)과 슬픔(sorrow)은 폐(lung)와 대장(large intestine)을 상(傷)한다고 했으며 오행 이론으로 폐와 대장은 금(金, metal)에 속하고, 방위(方位)로는 서쪽(west)을 지칭하며 백색(white)을 상징하고, 금(金, metal)은 중혁(從革, working of change)이니 즉, 변혁(變革)이며 속살(肅殺, purification-elimination)과 수렴(收斂, contraction)의 특성이 있으며 대자연(大自然)의 금(金, metal)의 기(氣)는 수렴하려는 기운이 있으며 인체도 대자연의 기(氣)를 따라 수축하고 수렴하려는 작용이 있는 것이다.

과도한 근심과 슬픔이 지나치면 기순환에 장애로 수렴 작용에 지장을 주어 해수(咳嗽), 입맛이 맵고, 기급(氣急), 천축(喘促), 흉협장통(胸脇脹痛), 소변불리, 피부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치료는 정체된 기(氣)를 소통

시키고 소모된 기(氣) 도와주고 폐경(肺經)과 대장경(大腸經)을 조절해야 한다.

지나친 놀람(驚, fright)과 공포(恐怖, fear)는 신(腎, kidney)과 방광(膀胱, bladder)을 상(傷)한다고 했으며 오행이론으로는 신(腎)과 방광(膀胱)은 수(水, water)에 속하고, 방위로는 북쪽(北, north)이고, 겨울(冬, winter)과 흙색을 상징한다.

겨울에는 대자연의 기(氣)가 아래로 침정(沈靜)하여 동면(冬眠)의 문턱에 이르게 되니 인체의 기(氣)도 아래로 수구러지게 되는데 지나친 놀람(驚, fright)을 당하면 기(氣)가 어지러워 지고, 지나친 공포(恐怖, fear)는 기(氣)가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놀람과 공포는 신(腎, kidney)과 방광(bladder)에 영향을 주며 입맛은 짜고, 소변불리, 요통, 불면, 공포증, 정력감퇴, 부종(edema), 이명(耳鳴, tinnitus),현운증(眩暈症)이 나타나는데 침정하려는 신-방광(kidney-bladder)을 조절하여 율하(潤下, moistening and descending)의 기(氣)를 도와 주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은 소우주(小宇宙, microcosm)로 생각하고, 대자연을 대우주(大宇宙, macrocosm)로 보고 있으며 인간은 대우주 속에 하나의 조그마한 부분이며 대자연(大自然)의 섭리와 질서 속에서 음양 조화를 이루고 순응하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 고전인 영주 사괘권(靈樞 邪客篇)에 의하면 인체의 생리 현상 및 질병이 자연계의 변화와 서로 상응하는 관계에서 하늘과 인간이 서로 상응하는 천인상응(天人相應),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에 근거를 두고 생명 현상을 동양 철학의 근간인 음양오행설로 형이상학적 현상(形而上學)의 現象, metaphysical phenomenon)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친 분노는 간-담(肝-膽)에 영향을 주어 우울증, 화병이 많으며 봄의 기(氣)가 상부로 발산하려고 하니 상기(上氣)된 기(氣)를 발산시키거나 풀어주어야 한다. 지나친 기쁨은 심-소장(心-小腸)에 영향을 주어 정신 및 혈관 질환이 나타나며 여름에 뜨거운 기(氣)가 상부로 발산하려고 하니 기(氣)를 발산시키고 늘어진 기(氣)와 손상된 진액을 도와 주어야한다. 지나친 근심과 슬픔은 폐-대장(肺-大腸)에 영향을 주어,피부병,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며 가을의 기(氣)가 수렴(收斂(elimination and contraction)하려고 하니 수렴(收斂)의 기(氣)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지나친 놀람(驚)과 공포(恐怖)는신-방광(腎-膀胱)에 영향을 주어 기(氣)가 하강하고 어지러우며 부종(浮腫), 정력 감퇴, 불면, 뼈(骨)와 수분대사(水分代謝)의 이상이 나타나며 아래로 침정(沈靜)하려는 겨울의 기(氣)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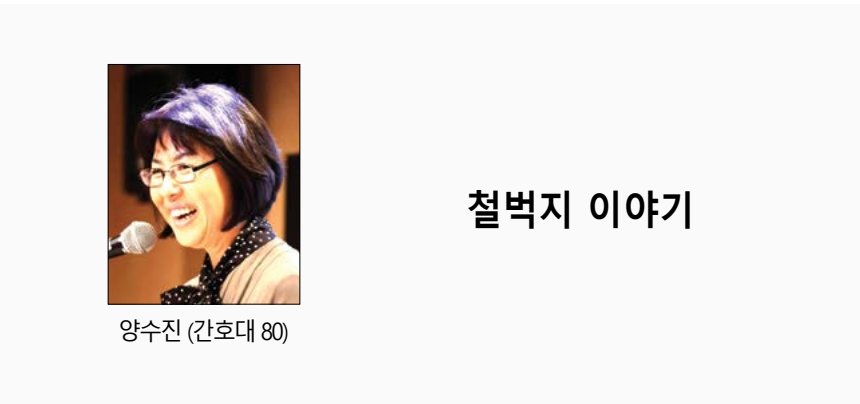
인체의 감정도 대자연의 기(氣)순환에 따라 순응하면 정서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은 누릴 수 있고 칠정(七情) 발로가 미급 하지도 않고 과도하거나 지나치지도 않은 중용의 도(中庸之道)를 지키면서 음양조화(陰陽調和)를 이루면 건강한 육체와 즐겁고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제28차 평의원의회의 (6/21~23/2019) 수입 및 지출 보고		
수입		
Donation	후원금	\$2,500.00
Seoul Alumni Donation	후원금	3,000.00
Registration Fee	평의원 참가비	11,200.00
*Membership Fee	*구독료	1,350.00
West Point Tour	투어 비용	1,900.00
Gross Profit	총수입금	\$18,600.00
*구독료는 이번 행사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았음.		

지출		
Appreciation Fee	강사료	\$1,200.00
Double Tree Hotel	평의원 행사 비용	29,300.21
Gallery Tour & Tip	미술관 투어	300.00
Photographer	사진사	500.00
Staff Meeting Expense	음식	152.00
Stationery	사무 용품	82.06
Thayer Hotel Brunch	투어 브런치	2,803.97
Transportation	이전 교통편	959.50
Transportation Tip	운전사 팁	250.00
Expense Total	총지출금	\$35,547.74
	총수입금	\$18,600.00
	총지출금	\$35,547.74
	총계	\$(16,947.74)
*부족한 금액 \$16,947.74 는 신용금 회장의 donation으로 충당했습니다.		

카네기 축하음악회 (6/22/2019) 수입 및 지출 보고		
수입		
Donation / Advertising	후원금 / 광고	\$45,190.00
Tickets	티켓 판매금	9,900.00
Adjustment / Carnegie	카네기 지불 차액	4,018.60
Gross Profit	총수입금	\$59,108.60

지출		
Advertising	신문 광고	\$1,500.00
Transportation	카네기 교통편	4,295.00
Flower	화환	325.88
Flyer	광고 안내지	200.00
Performers & Tickets	공연료	2,300.00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525.33
Pamphlet Design Fee	디자이너 비용	1,500.00
Printing	팜플렛 인쇄	1,391.10
Phill Harmony Boston	공연료	12,100.00
Playbill	공연 프로그램	125.00
Postage and Delivery	기타 우편료	454.87
Poster	포스터	79.87
Food	리허설 음식	279.00
Venue	카네기 홀 대여료	27,395.00
Expense Total	총지출금	\$52,471.05
	순수익금	\$6,637.55
순수익금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기금의 특별기부금으로 예치될 것입니다.		



양수진 (간호대 80)

남가주 동문 잔차 그룹 철벽지 Iron Thigh 에 3개월 전 가입, 오늘 Yorba Regional Park ~ Huntington Beach 44 miles 을 혼자 로드 잔차질 해 봤다.

혼자 하는 잔차의 묘미 "내맘대로 할 수 있다" ㅋㅋ 물 가까이 갔다가 난 물벼락 맞고 본능적 반응으로 머리 위에 들린 잔차는 말짱하다. 태평양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담고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약속 시간에 늦어 허겁지겁 오는 길은 어찌 왔는지 무지 빨리 왔음. 담아온 걸 보니 모래 가득한 신발이다. 잔차를 즐긴다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느낌일 줄이야!

잔차는 뛰는 것과 달리 적당한 스피드를 즐기게 된다. 잔차의 스피드는 지나치는 경치를 눈에 담아 기억의 고리에 포착하게 해주고,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페달을 밟으면 온몸의 세포들이 생명의 춤을 추기 시작한다. 뛰기는 열량의 소비와 몸의 균형 있는 운동 면에선 탁월하지만, 이 스피드를 즐길 수 없고, 오토바이의 스피드를 빨리 즐길 수 있으나, 이 생명의 바디 춤을 경험하지 못한다.

Road Trail 20마일 정도가 지나면 잔차는 성취감을 만족시켜준다. 성취감은 에너지의 긍정적 소비에서 나온다. 내가 움직이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미주 동문 업소록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김낙구(상대 67), 강동순(법대 59)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u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Leedco Engineers, Inc.
이종도 (공대 66)
T: 626-448-7870 / F: 626-448-3955
leedco@aol.com
3870 Baldwin Ave., El Monte, CA 91731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c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외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광고주를 모십니다.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 877-764-1405
520 S. Virgil Ave., #103,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약국
CareMax Pharmacy
유창호 (약대 74)
C: 909-229-7777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나성 약국
임낙균 (약대 64)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t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외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외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외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외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p.
조임현 (간호대 72)
T: 213-487-3253 / im.cho@axa-advisors.com
3435 Wilshire Blvd. Suite 2500, LA, CA 90010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기타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중 (문리대 61)
T: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A, CA 90005

미주 동문 업소록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곡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북가주 CA
정보 / 서비스
두리하나 결혼 정보
정지선 (상대 58)
T: 510-224-0760 / 1durihana@gmail.com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뉴욕 NY · 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노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이혁엽 (의대 73)
T: 201-568-3800 / 718-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 #LD, Flushing, NY 11354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외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운송 / 원자재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 718-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워싱턴 DC MD · VA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k.com
의료 /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 301-220-2828 / 301-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D.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i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광고주를 모십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자)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자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이창길 (자연) 대리 총무 국장: 문현호 (음)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이창길 (자연)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고문: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곽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 위원: 한경수 (문),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연봉원 (문), 최한용 (농)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이창길 (자), 허유선 (가),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연봉원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묵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Feb-Jan
	차기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신옥인 (농대 87)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병윤 (문리 65)	847-951-3297 jacobkimby@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an-Dec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병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ungyul04@comcast.net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Jul-Jun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jcac4610@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ul-Jun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Sep-Aug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이치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e@umkc.edu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권오을 (상대 56)	y.kwon@griffith.edu.au	Jan-Dec
	부회장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 미래에셋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 미래에셋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경험하세요.

Services offered **Wealth Management and Investment Banking**

최경석(사대 80)
상담 및 문의 (213) 262-3800
(213) 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90010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is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This message is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Advisory services are only offered to clients or prospective clients where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and its representatives are properly licensed or exempt from licensure.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turns. Investing involves risk and possible loss of principal capital. No advice may be rendered by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unless a client service agreement is in place. Member FINRA, SIPC.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15th ANNIVERSARY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since 1999 **듀오USA**

결혼해 듀오

www.duouusa.net 213-383-2525(LA) 201-242-0505(NY)



SeAH

SeAH Steel America, Inc.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이 병 준(상대 55)